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자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정

영토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 자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정

인 준 서

김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요약

최근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리 교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거꾸로 지리 교과목의 개편과 축소는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 과목의 축소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리교육의 기회를 빼앗게 될 것이고, 지리가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학문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대로 지리교육이 축소된다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영토 지식과 관련된 지리교육조차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인 중국 및 일본과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등 영토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토분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토 분쟁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고,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며 우리국토의 소중함도 함께 인식시켜야 한다.

영토와 국토교육은 지리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교과서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자기 나라들의 영토와 국토 교육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영토교육은 당연히 지리교과서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토교육이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독도와외의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과 비교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우리의 국토 단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많은 예시문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교과서를 통해 우리 영토와 국토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리적 인접국가의 영토와 국토교육에 대한 이해

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지리 교과서에서 영토 문제를 인접국가의 지리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토관을 갖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목 차

논문 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3
3. 선행 연구	6
II. 국토교육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9
1. 영토와 국토의 의미	9
2. 지리학의 선구자를 통해 본 국토관	11
3. 외국의 국토교육 내용 분석	13
1) 독일	13
2) 영국	15
3) 일본	17
III.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분석	19
1. 천재교과서	19
2. (주) 교학사	25
3. (주) 금성출판사	33
4. 비상교육	39
5. (주) 교학도서	45

IV. 고등학교 일본 지리A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 분석	54
1. 도쿄쇼세키(東京書籍)	54
2. 교우이쿠슛판(教育出版)	58
3. 세이수이쇼인(清水書院)	61
4. 데이코쿠쇼인(帝國書院)	65
5. 니노미야쇼텐(二宮書店)	67
6. 다이이찌가쿠슈우(第一學習社)	72
 V. 요약 및 결론	 7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1〉 연구에 사용한 7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5
〈표 1-2〉 연구에 사용한 2009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5
〈표 1-3〉 연구에 사용한 일본의 지리A 교과서	5
〈표 1-4〉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 내용	53
〈표 1-5〉 일본의 지리A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 내용	77

그림 목차

〈그림 1〉 산경도	20
〈그림 2〉 탐구활동 3 - 대동여지도와 택리지	20
〈그림 3〉 읽기자료- 일제강점기의 영토 인식	21
〈그림 4〉 우리나라 4극	21
〈그림 5〉 삼국접양지도	22
〈그림 6〉 읽기자료 - 끝나기가 어려운 영역 분쟁	23
〈그림 7〉 사례 탐구 -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23
〈그림 8〉 탐구 활동 -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	24
〈그림 9〉 도움 자료 - 지속 가능한 발전	25
〈그림 10〉 탐구활동 - 우리 조상들의 세계 인식과 서양의 세계관	27
〈그림 11〉 생각키우기 - 그래프 보는 남북간의 교류	28
〈그림 12〉 영역의 구분	29
〈그림 13〉 우리나라의 영해	29
〈그림 14〉 지형도 읽기	29
〈그림 15〉 독도	30
〈그림 16〉 탐구 활동 - GIS를 이용한 최적 입지 고르기	30
〈그림 17〉 제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31
〈그림 18〉 도움 자료 - 지역불평등, 과거에도 있었다	32
〈그림 19〉 생각해보기- 일제가 왜곡시킨 국토 이미지	34
〈그림 20〉 더 알아보기- 수도권 속의 세계	34
〈그림 21〉 활동7-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할까?	35
〈그림 22〉 생각 넓히기- 세계 지도가 달라진다	36
〈그림 23〉 테마 여행 -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영토 공간	37
〈그림 24〉 생각 넓히기- 고령화 현상	38
〈그림 25〉 세종실록지리지와 택리지	40
〈그림 26〉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국토변화	41

<그림 27> 탐구활동 - 녹둔도	42
<그림 28> 자료 - 우리나라의 지역구분	43
<그림 29> 자료 - 공유지의 비극	44
<그림 30> 지리 답사반 활동 일지	46
<그림 31> 여는 활동	47
<그림 32> 심화 활동	47
<그림 33> 사례탐구- 공업 도시 울산을 통해 본 국토관의 변화	48
<그림 34> 여는 활동 - 에이지퀘이크란?	50
<그림 35> 읽기 자료 - 서울 속 외국인 거리	50
<그림 36> 사례탐구 -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54
<그림 37> 북방 영토의 변천	55
<그림 38> 펼쳐진 사회란- 제일외국인의 증가	56
<그림 39> 무다포(霧多布)습원과 1:50,000의 지형도	57
<그림 40> ⑤남쪽에서 본 북한과의 경계 ⑥일본의 북방영토	58
<그림 41> ①오오이즈미 마을의 일본계 브라질인이 경영하는 점포의 분배	60
<그림 42> 세계의 시간대	61
<그림 43> 영토의 개념도	62
<그림 44> ③일본의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수의 추이 ④일본의 등록 외국인의 국적	63
<그림 45> ③쿠우베시의 우호도시, 자매도시	64
<그림 46> ⑤오키노토리섬의 호안공사	66
<그림 47> ⑥한국·북한의 비무장 지대를 경비하는 한국	66
<그림 48> 수단의 국경- 분수계란 산지와 산맥의 능선	66
<그림 49> ③등고선의 종류	67
<그림 50> 직각으로 붙여 맞춘 테이프	68
<그림 51> 일본과 미국 고교생의 이미지맵	69
<그림 52> 외국시로부터의 거리관계	69
<그림 53> ①교토시의 자매도시 분배와 제휴 년월일	71
<그림 54> ④교토와 진주시의 위치	72
<그림 55> ②경선·위선과 경도·위도	73

<그림 56> ⑤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	73
<그림 57> ①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로 쓰여진 표식	
②해외 여행자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수의 추이	74
<그림 58> ③지형도의 기호	7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되면서,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의 세 과목에서 경제지리가 제외된 한국지리·세계지리 두 과목으로 개편되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리를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리’ 교과목은 강조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토와 국토교육은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지리 과목의 개편과 축소는 지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목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사이 우리의 영토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긴장 상태인 가운데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 100주년(1904년 8월 한일협약 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로써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함)을 기념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6년 사회과 교과서와 공민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를 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¹⁾

우리나라는 다음날인 2005년 3월 16일 ‘대일(對日)신독트린²⁾’ 과 관련,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권수호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재확

1) 이하나, 2010,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한국 정부가 과거사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해 2005년 3월 17일 발표한 대일 외교정책.

인하고, 우선 역사적 자료 확충과 국제법적 논리 확보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독도와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하게 나올 경우 묵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수위는 상황을 판단해 결정기로 했다.³⁾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교과서 왜곡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동해의 표기와 독도의 표기 교과서를 확대하며, 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한 문제로 보고 한국지리 교과서에 서 잠깐 언급만 되었던 영토 문제를 2012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와 간도’ 라는 단원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의 중요성과 영역문제에 대해 학습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의 현실상 영토교육이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를 반성하며, 학생들에게 영토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왜 지리 교육에서 영토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일부 다른 국가들의 영토교육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였고, 우리나라의 ‘대일(對日)신독트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토 문제가 대두될 때만 중요하게 다루고, 일본이 먼저 시발점이 되면 우리는 주먹구구식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일시적인 영토교육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정치적 사안과 연결되어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영토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수리적, 지리적 위치가 어디이고 이어도, 녹둔도가 어디인지,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 본다면 대답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나라들과의 영토 분쟁은 지리적인 위치상 분명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바로알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의식을 바

3) 정부, ‘대일 신독트린’ 후속 조치 착수, 연합뉴스문, 2005.3.18. ,www.yonhapnews.co.kr.

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영토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국토에 대해서도 더욱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지리학에서 국토관이 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지리학사를 통해 바라본 국토관과 지리학자들의 영토 중요성의 인식,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국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교육은 지리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교과서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영토와 국토 교육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학교에서의 국토교육은 당연히 지리교과서가 주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비교가 아닌 우리의 영토와 국토교육이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독도 영유권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과 비교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 상의 영토와 국토의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며, 교과서 상의 주 초점이 영토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제목은 ‘영토(領土)’의 용어로 사용한다.

2. 연구의 방법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행한 방법은 먼저 다른 국가들의 국토 교육과 관련 그 나라의 국토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국토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통해 국토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인 「사회」 과목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문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다. 대단원은 교육부 과정에 의해 단원별 구

성이 모두 같으며 교과서 별로 중단원과 소단원의 순서와 주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지리 교과서가 모두 5종으로 편성되었으며, I 단원에서는 5종 교과서 모두 같은 단원인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과 VIII 단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으로 국토의 큰 틀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지리A와 지리B로 나누어지는데, 일본은 ‘국토’라는 큰 단원이 아닌 하나의 교과서 안에 일본의 국토와 세계의 국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단원별 구성과 대단원의 주제는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6종의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각 교과서별로 특징되어 지는 것들도 있었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지리A」와 「지리B」로 조직되어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채택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지리A 교과서에서 국토교육과 관련된 단원을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5종 한국지리 교과서의 국토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과 특징을, 일본 교과서 역시 내용과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지리교과서의 국토 교육에 관한 내용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일본의 교과서는 일본지리와 세계지리의 내용을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일본 교과서 내용 분석은 우리나라의 국토 단원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한국지리 교과서는 지형과 기후, 도시단원을 제외하고 I 단원인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VI 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I 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구분과 지리조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VIII 단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단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4) 이진우, 2005,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1〉 연구에 사용한 7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한국지리 (2·3학년)	(주)중앙진흥교육연구소	김주환 외	2005. 3. 1
	지학사	황만익 외	2009. 3. 1
	(주)금성 출판사	조화룡 외	2005. 3. 1

〈표 1-2〉 연구에 사용한 2009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한국지리 (2·3학년)	(주)천재 교과서	박병익 외	2012. 3. 1
	(주)교학사	김주환 외	2012. 3. 1
	(주)금성 출판사	서태열 외	2012. 3. 1
	(주)비상교육	이우평 외	2012. 3. 1
	(주)교학도서	기근도 외	2012. 3. 1

〈표 1-3〉 연구에 사용한 일본의 지리A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지리 A	도쿄쇼세키(東京書籍)	이시토비가즈요히 외	2012. 2. 10
	쿄우이쿠슛판(教育出版)	오쿠노시이 외	2013. 1. 20
	세이수이쇼인(清水書院)	야마모토시게루 외	2013. 2. 15
	데이코큐쇼인(帝國書院)	나카무라가즈오 외	2013. 1. 20
	나노미야쇼텐(二宮書店)	야마모토쇼우조우 외	2013. 1. 20
	아이이찌가쿠슈우(第一學習社)	후지하라켄조우 외	2013. 2. 10

3. 선행연구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분석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의 제도와 변천과정, 구성과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나오는 논문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전 되었으며, 영토·국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미흡한 편이다.

2005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과 2006년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 등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영토 문제가 대두되자 2006년 이후 영토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토교육을 독도 교육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역사적인 시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편이었다.

먼저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리교육에서 국가 영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병후, 2006⁵⁾)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주변국가와 비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지리교과서에서 영역 교육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함을 지적해 지리 교육과정이 다음세대를 위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권영배, 2006⁶⁾)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사회에서 독도 교육 분량과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다루고 있다.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본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인식(김혜숙, 2007⁷⁾)은 영토 및

5) 김병후, 2006, “지리교육에서 국가 영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권영배, 2006, “중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제36집 P145~186.

7) 김혜숙, 2007,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본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인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영해와 관련 학생과 일반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이 매우 미흡하며, 영토와 영해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이 진정한 영토 의식을 길러주고 충분한 관련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통로라고 영토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영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김종연, 2008⁸⁾)에서는 학교 지리교육의 영역에 우리 영토를 기술하는 부분 중 독도와 동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며 미국, 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영유권 표기에 대한 국제 규약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노력을 많이 펼쳐나가야 하며, 학교 지리교육에서 영토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김경동, 2008⁹⁾)에서는 이스라엘은 국가와 영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의 특성상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토 의식을 형성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며, 특히 영역의 경계선 교육과 지도를 중심으로 땅에 대한 반복적 이미지 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초등사회과 교육부터 영토교육이 재조정되어야 함과 더불어 초등학교 교육이 국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신념에 들어서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세계화를 향한 사고의 확대와 세계시민으로 자라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영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서태열, 2009¹⁰⁾)에서는 아직도 영토 교육이 단순히 국수주의적 맹목적 영토애를 기르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토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종래의 영토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 8) 김종연, 2008,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영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 16권 제4호 P387~398.
 - 9) 김경동, 2008, “한국과 이스라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197~210.

우리국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권용우 외, 2009¹¹)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의 국토 관련 교과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기관과 민간부문의 국토교육 실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해외 국토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의 시사점과 국토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국토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 기반이 성립되어야 하며, 지리학이 그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이하나, 2010¹²)은 우리나라의 사회과(사회, 한국지리, 국사, 근·현대사) 전체에서 영토 부문에 대한 내용을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 구성방법과 지도, 사진들을 제시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영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교과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영토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영토교육 중 독도 단원이 새롭게 등장,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송호열, 2012¹³)의 연구는 현행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단원을 양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 교육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독도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들에 대한 연구가 하루 빨리 완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영토교육의 중요성과 학교교육이 이것을 중요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의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독도에 한정되어지고, 독도 연구도 지리학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토·국토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1) 권용우외, 2010, “국토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6호 P721~734.

12) 이하나, 2010,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송호열,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한국사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P53~69.

Ⅱ. 국토교육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1. 영토와 국토의 의미

우리가 지리교육에서 자주 쓰는 ‘영토’ 와 ‘국토’ , 그리고 ‘영역’ 등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지리학의 역사적인 연구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 교수로 부임한 아헨발(Gottfried Achenwall, 1719~1772)은 최초로 통계학의 명칭을 만든 사람이라 통계학의 아버지라 불리운다. 통계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통계학(Statistik)이란 영어로 statistics로, 이 말의 어원은 state, 즉 국가라는 뜻에서 나온다. 아헨발은 국경을 기준으로 국가 단위로 지역을 연구하는 분야를 통계학(국가지)라 부르면서, 지리학과 구분하고자 하였다.¹⁴⁾

1700~1800년대 유럽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704)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 등 많은 전쟁들이 발발한다. 왕위계승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지면 뺏기는 것이었다. 이처럼 빈번한 왕위계승 전쟁과 소규모의 전쟁으로 국경선이 자주 변경 되었기에 국가 단위로 지역지리를 서술하던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겨 이 당시 아헨발을 중심으로 학자들은 자주 변화되는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하고서 국가 단위로 연구하는 분야를 통계학(국가지)라 부르고, 국경변화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영구불변의 지역 경계선을 찾아 지역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에 따라 지역을 연구하는 것을 지리학이라 부르자고 합의한다. 여기서부터 지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상적 뿌리가 형성된다.¹⁵⁾

그 후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인간의 사회집단 중 주로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그 중 국가의 영토를 연구대상 분야로 설정, 이것을 정치지리학이란 분야로 제시하였다. 정치 지리학이란 입지의 전략적 이점과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특히 ‘영토’ 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영토는 정치적인

14)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P26.

15)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P27~30.

개념으로, 국제법은 지구상의 평면을 국가의 통치작용이 미치는 한계인 국가영역(영토·영해·영공)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눈다. 영토는 국가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지리학에서는 영토가 안식·먹이 제공과, 국민 결속의 상징적인 중요성 외에 정치체제가 작동하게 되는 공간적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영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¹⁶⁾

라첼은 ‘향토’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해 1890년대 독일에서는 국토학이 아니라 향토학 운동을 전개하여 향토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1930년대 일본에도 도입되어 일본에서도 향토교육 운동이 이루어진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이 전투에 참전할 때 국가와 민족 뿐 아니라,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한다고 설득해 국가보다는 고향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현재 하는 일에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라첼의 이론들은 전파(확산) 과정을 지리학에서 주요개념으로 정립해 영토정복과 식민지를 정당화 시키는 이론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우리의 영토 분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토와 영토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용어는 분명 차이가 있다. 국토는 한 국가의 영토로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존 공간이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삶의 터전(천재교과서, 2012)이라고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상에서 정의하고 있다.

영토란 오늘날 어느 국가에 속한 영토로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고 국가 통치권 행사의 기본적인 장소적 한계를 형성(이한기, 1969)하고 있다고 한다. 영토는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 3대 요소 중 하나이며, 안식과 먹이를 제공하고, 국민 결속의 상징적 기능 수행, 정치체제가 작동하게 되는 공간적 기초를 제공한다(임덕순, 1989)고 하였으며, 고트만(Gottman, 1973)은 영토는 실질적이고 유형의 것으로서 실재하는 것이지만 민족공동체의 정의적 표현의 대상으로 신성성마저 부여받

16)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원리, 법문사, P64.

고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인 국토포털에서는 영토와 국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다. 영토는 국제법상으로 지구상의 평면을 분류했을 때 영토, 영공, 영해가 국가 영역에 속하며, 그 중의 영토는 토지로서 구성되는 국가 영역이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이며 일반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말하며 국토가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국민 생산 활동의 기반을 의미한다. 또한 국토는 국민의 생활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며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로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⁷⁾

본 연구는 지리 교과서의 국토 단원을 연구했기 때문에 교과서 상의 영토(領土)와 국토(國土)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 지리학의 선구자를 통해 본 국토관

근대 지리학의 창시자로 우리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와 칼 리터(Carl Ritter)라는 위대한 두 학자를 생각해 보았다.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답사여행을 통해 획득한 세계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인들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전 세계로부터 수집된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시대상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역 뿐 아니라 세계의 영역 확대를 통해 지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훔볼트는 답사를 통한 엄밀한 관찰에 대단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표상에서 공간적 상호관계와 의존성 아래 발생하고 전개되는 현상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역을 관찰함에 있어 현상의 자연적, 유기체적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⁸⁾

17) 국토지리정보원(국토포털), www.land.go.kr.

또한 리터는 「지리학」의 연구대상을 지표에 한정시키고 있다. 리터는 지표의 전체 영역을 지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한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그는 인류의 거주지로서 지표를 중점적 관심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지리학」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합되어 나타나는 공간 원리를 밝혀내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지도와 지도집, 그림,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에 대한 탐구 등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지리교육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해 결국,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독일인들의 세계관을 형성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¹⁹⁾

리터는 ‘향토’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하였는데, ‘향토’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이다. 그는 1890년대 독일에서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함께 향토학 운동을 전개 하였다.

라첼 이후 1890년대의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향토교육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1930년대에는 일본에 도입되어 일본에서도 향토교육 운동이 전개되고 큰 단체가 결성되었다. 향토학이란 독일어로 하이마트쿤데(Heimatkunde)이고, 향토는 하이마트(Heimat)이다. 하이마트의 원래 어원은 라첼 전까지 고향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향토학이란 지역연구인데도 가치가 강하게 주입된 지역연구이다.²⁰⁾ 향토학이 독일과 일본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세력을 넓혀가며,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려 했던 것이었다. 라첼은 지리학이 발전하는데 기여도 하지만, 독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식민지를 팽창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결국, 말년에 범게르만 협회를 조직하는데 관여해 회장까지 역임한다.

18)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P83.

19)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P89.

20)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P97~98

3. 외국의 국토교육 내용 분석

1) 독일

19세기 초까지 독일의 지리학은 역사학의 하위분과이거나 역사학을 보조하는 학문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훔볼트와 리터가 등장함으로 근대 지리학의 본격적인 개막이 이루어진다. 독일은 1828년 베를린에서 리터의 주도하에 베를린 지리협회(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지리학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1850년까지도 독일에서의 지리학은 일반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역사를 보완하는 교과목이었으나, 페스탈로치의 근대적 교육원리가 전파되면서 학교교육에서 지리학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²¹⁾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의 점진적인 확대와 지리교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학술적 지리학은 대학의 학문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프로이센이 주도한 독일의 통일에 반대할 국가가 없어지게 되어,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지리학이 정치적 목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지리교육이 국민국가의 이념을 강화시키고, 세계교역과 국가 발전의 경제적, 정치적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²⁾

1872년 학제를 개편, 교육 개혁령을 선포하여 지리가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필수과목이 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지리과목을 필수로 가르쳐 지리교사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1874년에 이르러 프로이센 정부가 프로이센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 강좌를 설치함으로써 ‘땅’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지리학으로 발현 되어 국토 개념에 관한 교육이 지리학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일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지리를 필수교과로 선정하고 모든 대학에 지리학 강좌를

21) 권용우 외, 2009, “우리국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 p105~106, 국토해양부.

22)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P83.

설치한 것은 바로 ‘지리’가 독일 민족주의의 이념적 토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많은 도시가 합법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연방국가였는데, 독일을 통일 시키고 학생과 국민들에게 지리교육을 통해 독일 통일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심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들어와 통일 국가를 형성하며, 국가 통일을 위한 국토교육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 국토 교육은 17~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직적 형태로 수행된 것은 19세기 중반 경에 본격화된 향토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지리’ 과목에 중요성을 두고 독일의 영토가 하나의 등질지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하나의 등질지역으로 뭉쳐 인위적 국경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독 분단 상황에서 국토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단순한 국토지리에 그치지 않고,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먼 생활공간(vom Nahen Zum Fernen)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행해져 왔다. 오늘날 독일의 국토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지리교과(Erdkunde)를 통해 국토와 세계지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초등학교 단계의 국토교육은 향토교육에서 시작되어졌으며, 기본적으로 사실 중심과 학생중심 원리에 입각해 추진된다. 중등학교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확장하면서 수행되며, 서로 다른 공간차원에서 지리적 사상과 공간 이해를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향토공간을 기반으로 유럽과 세계까지 확대시키며, 독일과 인접국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지역과 영역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킨다. 대학에 가기 전 중등학교 4학년(11,12/13학년)에는 기초 및 중등학교 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대학 교양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심화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국토 교육은 향토와 영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지리교육(Erdkunde)를 통해 이루어지며, 독일 내 뿐만 아니라 세계 여

23) 이자원외, 2010,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3호 p431~432.

러 나라들의 영토관련 문제와 연결시켜 반복적 과정을 통해 내용을 심화시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진다.

독일의 국토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지리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Geographie)’가 상위의 모(Dach)협회이고, 그 산하에 여러 분과 학회들이 있다. 이들 학회는 지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역량 있는 지리학자를 선별하고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며, 지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리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영토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고양시킨다.²⁴⁾

2) 영국

19세기 초 영국의 선구자적 지리학자들은 주로 자연환경과 기후 등에 관심을 가지며, 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중·고등 학교에서는 지리학이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목이라 인식되었다. 비 지리학 전공 교사들이 지리를 담당하며 지명과 산물을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하였으며, 1860년대 이미 대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립되어 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있는 반면, 자연지리학은 지질학과의 한 연구 분야로 간주되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만 간주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를 거치면서 지리학이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 왕립지리협회는 대학에서도 지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리학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시도한 결과, 1900년대 들어와서는 도시 재건축에 대한 연구로 지리 영역을 넓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이란 사회의 모든 현상이 연구 될 수 있는 유일한 맥락으로 인식되고, 주민들의 경험이 구체화되는 지역적 의식이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관점이 공간구조와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⁵⁾

24) 권용우 외, 2009, 우리영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 p109~118, 국토해양부.

25) 이자원 외, 2010,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3호 p434.

영국의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였으나, 1990년 대 초, 중반 이후로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가 교육 내용을 결정하여 영토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영국의 교육과정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1단계에서는 단순한 수준의 지리 조사 활동을 하며, 지도·사진과 같은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2단계에서는 지도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실천적 학습능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Key Stage 3단계에서는 학생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영국과 외국의 환경, 장소에 대해 조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초등 교육과정이 지리, 역사, 시민성 교과를 함께 묶어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이해’라는 학습영역으로 통합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초등 단계 (KS 1-2)에서는 기존 지리와 역사 중심의 분과 체제가 무너지고 통합사회과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리가 KS 3에서만 독립 교과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²⁶⁾

영국은 4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으로 구성된 민족 구성이 다양한 국가이다. 그래서 영국의 영토교육은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여 국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며, 민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영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확보하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²⁷⁾

1893년 5명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영국의 지리학 협회 Geographical Association(GA)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교사 및 지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개발 및 캠페인 등을

26) 조철기, 2012,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개정과 새로운 지리 학습 프로그램 특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232~251.

27) 이하나, 2010,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별이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며, 국토문제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국토교육은 국토와 관련 된 여러 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국가와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국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²⁸⁾

3) 일본

일본의 지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문부과학성과 협동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 부처의 교육 정책 중 ‘국토교육’에 대한 법령 또는 시행령, 규정 등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에서 행하는 「주생활교육(住生活教育)」은 지리학 및 국토교육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국토교육이 비교적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토교육의 경우 주교육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다.²⁹⁾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측면들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일본의 초·중등 학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6·3·3 학교 체제이며 교육 행정기관으로 중앙교육기관인 문부과학성과 지방 교육기관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 3중층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일본은 국제화·세계화 사회라는 급속한 변화와 21세기를 맞아 ‘전후 교육의 총결산’이라는 미명 아래에, 1989년 유치원 교육요령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전후 최대의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³¹⁾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에서 영토교육 내용 기술은 소학교 5학년, 중학교 1학

28) 권용우 외, 2009, “우리영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 p134~136, 영토해양부.

29) 권용우 외, 2009, “우리영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 p151~161, 영토해양부.

3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12, “한국교육과정 실행과 사회과 교육의 탐구”, p22, 한국학술정보(주)

31) 이찬희, 2002, “일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규제 및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p50, 한국교육개발원.

년, 지리적 분야와 3학년 공민적 분야, 그리고 고등학교 지리A와 지리B, 공민과의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중 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 3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³²⁾

일본의 영토교육은 학교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토 인식은 일본과 세계의 지리적 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적·다면적인 관점에서 영토의 지역적 특색을 이해하고, 지리적 관심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 저작의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초등학교 사회과 5학년에서 영토 및 영역과 관련 내용을 사회과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교육 받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영토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는 지리에 대한 관심·의욕·태도 제고, 세계적, 다면적 지역 이해, 지리적 관점과 사고 방식이라는 과목 목표는 국토 인식의 함양이라는 과목 목표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교과서의 학습내용-활동은 학습자의 국토 인식 함양이라는 총괄적인 과목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³⁾ 고등학교의 국토 영역은 세계적인 시각 안에서 일본의 영토와 관련, 북방영토 문제와 호안 공사 등을 공부하며 학생들의 예의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시키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간 일관성 측면에서 중학교는 일본의 국토 인식에 중점을 두고, 넓은 시야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회과는 지역학습의 범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지역에서 세계로 확대되는 동심원적 확대의 원리³⁴⁾로 구성되며, 일관성 있는 국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제16권 3호, p181.

33) 심광택, 2007, 사회과 지리 교실수업과 지역 학습, p215~216, 교육과학사

34) 윤옥경, 2007, “영토교육관련 학교교육의 내용 및 영토교육 사례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155

Ⅲ.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 분석

1. 천재교과서

I.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1. 자연과 사람의 공존
2.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
3. 동북아시아 시대와 국토 통일
4. 영역과 우리 국토

IV.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I)

1. 지역과 지역이해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2. 다문화 사회로의 이동
3. 지역 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4.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천재 교과서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을 인간과 자연을 강조하는 전통사상이 오늘날 생태학적 국토 인식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교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정확한 인식과 국토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의 중 단원인 ‘1.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서는 국토의 중요성과 조상들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국토인식을 시작으로 풍수지리 사상으로 인간의 삶터 찾기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산경표에 나타난 산줄기를 지도화 <그림 1> 하여 산경도와 하천을 제시해 우리나라 조상들의 전통적 국토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탐구 활동2에서는 한양과 풍수지리 사상의 연결성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풍수지리 사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조선 이후 국토관에서는 조선후기 실학사상과 국토관의 변화를 설명하며, 조선 전·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산경도

(천재, 2012, 15)

탐구 활동3 <그림 2>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주고 실제 거리 계산법과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고지도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읽기 자료 <그림 3>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국토인식을 그림으로 풍자해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한다. 산업화 시대의 국토관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국토개발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지역 및 계층 간 부작용 발생으로, 바람직한 국토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한 생태학적 가치와 미래가 담겨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탐구 활동 3 대동여지도와 택리지

자료 1 대동여지도, 경상도 안동과 주변 지역

자료 2 택리지, 팔도총론 전주부

주출산 이북의 여러 골짜기 물은 고산현을 지나 전주 경계로 들어오고, 다시 울담, 양전포, 오백주와 같은 큰 시내가 되어 농사에 이용되는 까닭에 땅이 아주 기름지다. 게다가 벼, 생선, 생강, 모시, 대나무, 감 등의 생산이 활발하여 천 개의 고을과 만 개의 마을이 먹고 살만큼 물자가 풍요롭다. 서쪽의 사탄(만경강의 옛 이름)에는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가 왕래한다.

- 1 | 자료 1 | 지도표를 참고하여 안동에서 예천까지의 실제 거리를 구해 보자.
- 2 | 자료 1 | 의 대동여지도에서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오늘날의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3 | 자료 2 | 를 실학사상과 연결지어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그림 2> 탐구 활동 3 - 대동여지도와 택리지 (천재, 2012, 17)

읽기 자료 일제 강점기의 국토 인식

일본 사람과 청나라 사람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를 서로 낚으려 한다. 물고기의 이름은 'COREE', 즉 우리나라이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는 러시아 사람이 물고기를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싸움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의 부수적 존재이며, 여러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국토를 '산지가 많고 지하자원이 빈약한 땅', '갯벌로 이루어진 쓸모없는 땅', '허약한 토끼 모양을 닮은 땅' 등으로 묘사하며 경시하였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리스와 로마는 반도국으로서 매우 융성했으며, 세계를 지배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도 반도에 위치한 나라이다. 반도국은 오히려 대륙과 해양으로 쉽게 연결되어 외래 문명을 받아들이기 쉽고 정치·경제적으로 힘을 떨치기에도 유리하다.



▲ 구한말 프랑스 사람 조르주 비고가 그린 그림

〈그림 3〉 읽기 자료 - 일제강점기의 국토 인식 (천재, 2012, 17)

중 단원 '2.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에서는 수리, 지리, 관계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에서 경도를 통해 시간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4극 〈그림 4〉을 지도상에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4극을 통해 우리나라의 확실한 위치와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도국을 통해 주변의 나라들과의 진출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 우리나라 4극과 중앙 경·위선

〈그림 4〉 우리나라 4극

(천재, 2012, 20)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국토 공간변화를 설명해 세계화 시대의 현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3단원 '동북아 시대와 국토 통일'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경제 핵심 지역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 증진이 높아질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교류 중심 국가의 전제조건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을 강조 하

읽기 자료 끝나기가 어려운 영역 분쟁



① 북방 4개섬 분쟁 일지	② 동중국해 섬 분쟁 일지	③ 2009년 남중국해 마찰 일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차지	1895년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중국 영토인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 차지	3월 9일 미코 필리핀 - 중국 어선 해상 대치
196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소련 차지	1971년 중국, 영유권 주장	3월 11일 필리핀,南沙 군도 등 영토 편입시킨 영해선법 제정
1956년 중·일 공동 선언, 평화 조약 체결 때 일본에 2개 섬 양도	1973년 일본, 미국에서 오키나와를 반환받으면서 센카쿠 일도의 반환도 요구	4월 25일 베트남, 시사 군도 인민위원회의 주석 일명
1993년 도쿄 선언, 평화 조약에 앞서 4개 섬 귀속 문제 해결	1978년 일본 등대 설치	5월 16일 중국,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의 어선 1척 북위어로 인속
2009년 2월 양국 정상 특종의 새로운 접근 합의	2004년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합의 시역	6월 20일 인도네시아,南沙 군도 서부 해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
6월 일본 중의령, 고꾸 열도 영지권 특별법 통과	2009년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 합의	6월 21일 중국, 시사 군도 동부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 나포
2010년 러시아 대통령의 섬 방문 및 일본 상부의 반발	2009년 공동 개발 관련 합의	6월 22일 중국, 해양 도시법안 전인대 상정

▲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국가 간 영토 분쟁은 지루한 싸움이다. 하지만,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까닭에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당사국 간의 일정한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해법을 찾는 듯하다가 틀어지기 일쑤이다. 더욱이 자원 문제까지 겹쳐 마찰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섬에서는 분쟁의 불씨가 계속 타고 있다.

-○○일본, 2009년 7월 1일

〈그림 6〉 읽기 자료 - 끝나기가 어려운 영역 분쟁 (천재, 2012, 39)

1 | 자료 ①, ②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아래 지도의 빈칸을 채워보자.

(1) 북부·중부·남부 지방

(2) 전통적인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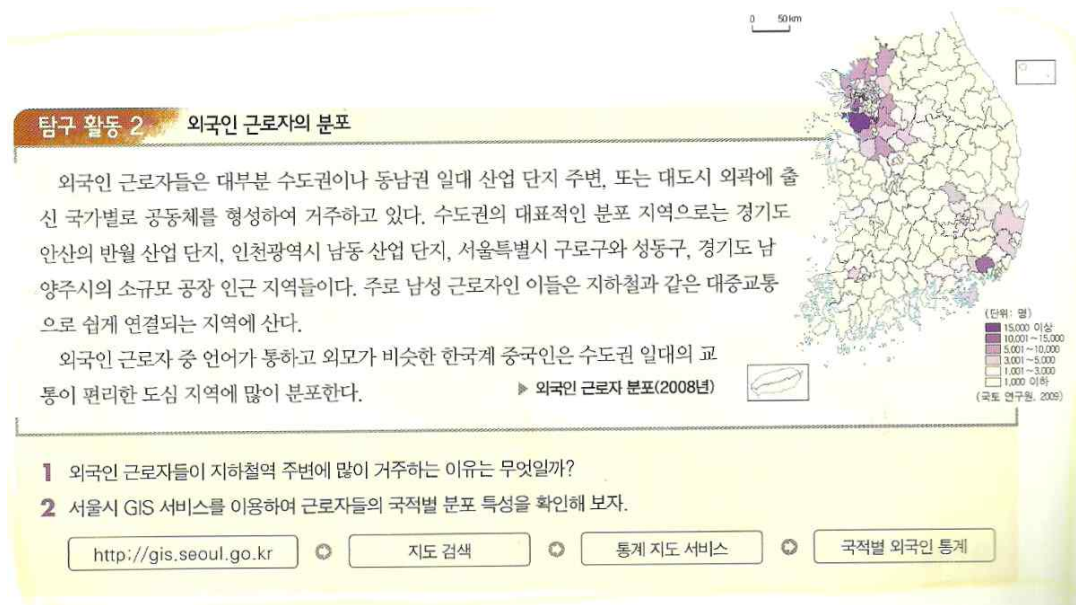
▲ 금강

▲ 조령

〈그림 7〉 사례 탐구 -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천재, 2012, 181)

VIII 단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처음에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성장 단계가 저출산, 고령화문제와 이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탐구활동 2’ <그림 8>에서 제시하고 왜 이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묻고 있다.



<그림 8> 탐구 활동 -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 (천재, 2012, 243)

중단원 2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로 1990년대 이후 국제 결혼이 활발해지고 다문화 가정이 농촌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 도시 지역에서도 보편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한편, 아직 우리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개발에서는 개발방식과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변화를 비롯하여 이 두 지역의 불평등을 교육

문화·재정 자립도 등을 통해 전반적 불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자원 고갈과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1980년대 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도움 자료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환경 파괴에 따른 위기감의 고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에 대한 회의가 열렸고 유엔 환경 계획(UNEP)에서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로 인하여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1987년에 발표된 유엔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담(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강령으로 ‘의제(Agenda 21)’이 채택되었다. 현재 선진국 등 130여 개국에는 국가 지속 가능 개발 위원회(NCSD)가 구성되어 각종 정책을 조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창립되었다.

<그림 9> 도움 자료 - 지속 가능한 발전 (천재, 2012, 255)

또한 국토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개인 차원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자신임을 알고 반성하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2. (주) 교학사

I.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1. 국토 인식의 변화
2. 우리나라 위치와 세계화에 따른 변화
3.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
4. 독도와 간도

Ⅵ.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I)

1. 지역의 이해
2.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
2. 외국인의 유입과 다문화 사회
3. 지역 개발과 공간적 불평등
4.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주)교학사 교과서는 국토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국토가 당면해 있는 상황과 미래 한반도의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위치 · 위상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 단원 '1. 국토 인식의 변화'에서는 조상들의 국토 인식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와 조상들의 국토관인 풍수지리 사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지도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과 서양의 세계지도를 통한 세계관을 탐구활동을 통해 <그림 10> 설명하고 있다.

조선 전 · 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비교해 이 당시의 유행 사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고지도를 많이 첨부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근대 이후 국토관의 변화에서는 일제 시대부터 산업화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국토관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를 이용 대상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 지향적 국토관인 지속 가능한 국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화에 따른 변화' 단원에서는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징과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로서의 중심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북한과 주변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서양의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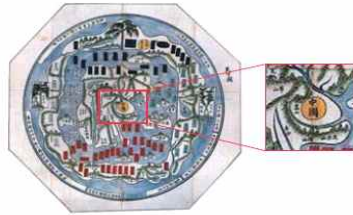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서양의 세계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1402년)



▲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로, 국가적인 관심 아래 김사형, 이무, 이회 등이 만들었다.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중국이 있고, 일본으로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당시의 전 세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지도는 중국의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2] 천하도(조선 후기)



◀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상상적 세계 지도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과 중화사상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상상 속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도교적 관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3] TO 지도(유럽 중세)



◀ 서유럽에서 사용하던 지도로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고 흑해, 나일 강, 지중해가 T자 모양을 이룬다. 이 지도에서는 동쪽이 위로 오기 때문에 가장 큰 구획이 아시아, 왼쪽 아래가 유럽, 오른쪽 아래는 아프리카가 된다.

- 1 [자료 1]과 같은 지도를 만든 이유와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세계관을 설명해 보자.
- 2 [자료 1]의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표시해 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비교해 보자.
- 3 [자료 2], [자료 3] 지도의 형태와 세계관을 비교해 보자.

<그림 10> 탐구 활동 - 우리 조상들의 세계 인식과 서양의 세계관 (교학사, 20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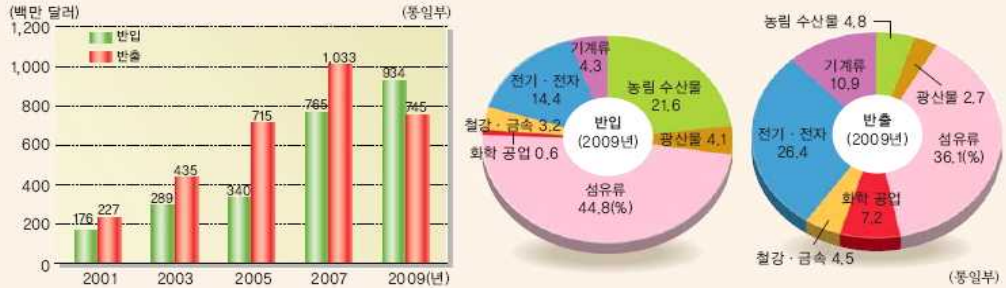
또한 위치적 특징으로 인해 알려진 곳을 4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도상에서 학습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우리나라의 영역 범위를 다시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우리 국토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한다.

3단원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에서는 첫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교역 증대로 인해 한반도의 역할 중요성과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설명한다. 또한 통일의 중요성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 하며, 생각 키우기에서는 남·북간의 교류를 통계 그래프로 제시해 남한과 북한의 산업 특색과 관련해 학생들이 설명해 볼 수 있게 하여 남·북간의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림 11>



생각 키우기 그래프로 보는 남북 간의 교류

[자료 1] 남북 교역액 변화 및 교역 품목별 구성비



[자료 2] 남북 인적 교류 변화



[자료 1]에서 남북 간의 교역을 반출, 반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족 내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주로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 교역 형태로 진행되며, 위탁 가공 교역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남한에서 원자재와 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최근에는 경제 협력 사업(개성 공단 사업 등)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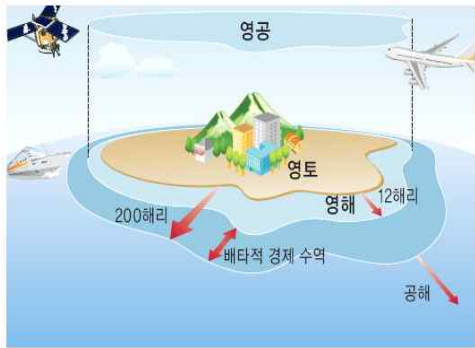
남북 간의 인적 교류는 남북 연결 도로 개통과 개성 공단의 본격 개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핵 실험(2009. 5. 2.)과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이 발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10년 5·24 남북 조치에 의해 남북 교역이 중단되고 방북이 제한됨에 따라 남북 왕래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간의 교류는 남북 관계 상황에 따른 교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① [자료 1]의 품목별 교류 현황을 보고, 남북 간의 교류 품목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남한과 북한의 산업 특색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그림 11〉 생각키우기 - 그래프 보는 남북간의 교류 (교학사, 2012, 31)

4단원 ‘독도와 간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인 까닭과 지리적 특색과 발전 방안, 더불어 탐구활동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게 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인식과 국토애를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주)교학사는 도움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역 〈그림 12〉, 〈그림 13〉을 한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며, 영역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 있는 곳으로 강조하고 있다.



▲ 영역의 구분

〈그림 12〉 영역의 구분



▲ 우리나라의 영해와 한·중·일 어업 수역도

〈그림 13〉 우리나라의 영해 (교학사, 201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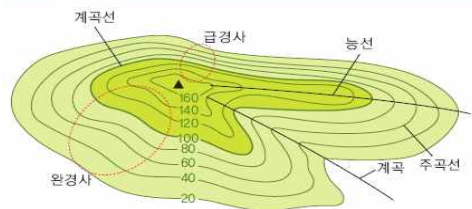
이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지도 읽기 부분이 '생활 속 지리 발견 <그림 14>, <그림 15>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읽을 수 있게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형도 읽기의 기본인 축척, 방위, 기호와 등고선을 통해 독도의 지도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독도의 지도를 읽을 수 있게 해 다른 교과서와 차별을 두고 있다. 첫 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에서는 간도의 위치와 역사로 본 간도의 변화, 간도를 둘러싼 영역 갈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성향보다 역사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료 1] 지형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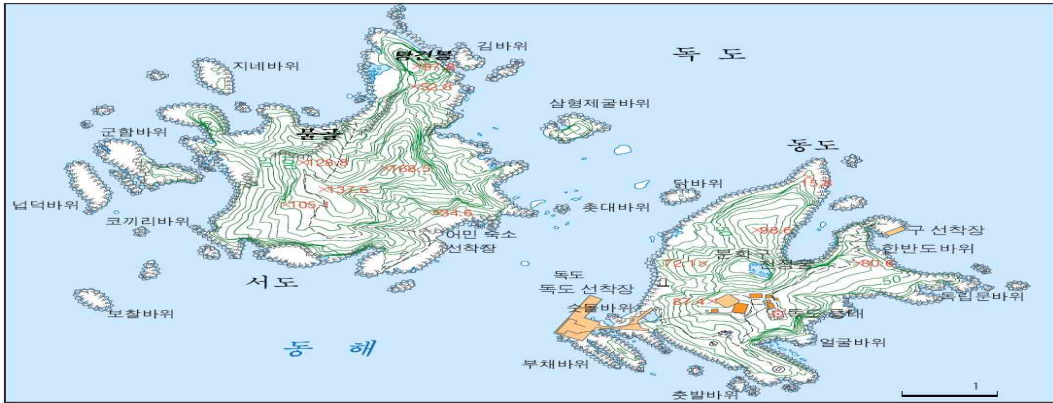
- **축척** :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직선 거리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축척은 비례식(1 : 50,000)이나, 분수식($\frac{1}{50,000}$), 막대자($\frac{0}{1\text{km}}$)로 표현된다. 축척 1 : 50,000의 지형도에서 1cm는 실제 거리 50,000cm를 나타낸다.
- **방위** : 방위표(4)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표시가 없을 때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을 나타낸다.
- **기호** : 지도에 각종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 **등고선** :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폐곡선으로, 그 형태와 간격을 통해 지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넓으면 완경사 지형이다.
 - 등고선의 모양이 높은 쪽을 향해 굽어 있으면 계곡, 낮은 쪽을 향해 굽어 있으면 능선이다.
 - 등고선의 표시

구분	축척 1 : 50,000	축척 1 : 25,000
계곡선(———)	100 m 간격	50 m 간격
주곡선(———)	20 m 간격	10 m 간격



〈그림 14〉 지형도 읽기 (교학사, 2012, 36)



〈그림 15〉 독도 (교학사, 2012, 37)

Ⅵ 단원은 지역과 지역성, 다양한 지역 구분 방법을 먼저 제시한다. 지역구분이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구분과 광역 경제권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리 정보에서는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GIS를 이용, 최적 입지 고르기 등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게 제시한다. 〈그림 16〉

GIS를 이용한 최적 입지 고르기

새봄이네 가족과 중현이네 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한다. 두 가족은 GIS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곳을 고르려고 한다. 지도에서 두 가족이 원하는 지점을 찾아보자.

새봄이네 가족의 조건

- ① 쇼핑몰과의 거리는 3km 이하
- ② 공원과의 거리는 3km 이하
- ③ 소음은 40 db 이하
- ④ 지어진 지 10년 이하의 주택

중현이네 가족의 조건

- ① 학교와의 거리는 3km 이하
- ② 도서관과의 거리는 3km 이하
- ③ 소음은 40 db 이하
- ④ 지어진 지 10년 이하의 주택

입지 지점	소음값(db)	주택 연령(년)
A	35	8
B	45	7
C	35	12
D	45	9
E	35	8

〈그림 16〉 탐구 활동 - GIS를 이용한 최적 입지 고르기 (교학사, 2012, 215)

VIII 단원의 중단원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점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가 노동, 복지, 문화, 산업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변화 될 것이며, 대책에서는 정부의 ‘새로마지 플랜 2010’ 과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그림 17>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일·가정의 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보육 시설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표제 도입 • 육아 휴직 급여 월 50만 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률제 도입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 시간 계좌제 도입 • 육아 휴직 시 건강 보험료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 무급 2일로 확대
결혼·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 출산 시 상근 예비역 편입 •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득 요건'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
보육·양육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자 확대(소득 하위 50% → 70%)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영아 돌봄 시장 제도화
다자녀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아이 이상 공무원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 셋째 아이 이상 가정 주택 지원(민영 주택 특별 공급 3% → 5%,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율 4.7% → 4.2%) •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자녀 2인 100만 원, 2인 초과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2011년 이후 출생아부터)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 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 중 고령자 신규 창업 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 지원
현 세대 노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연금 신설(2011년) •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 검토(2012년) • 골다공증(2011년) 및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 급여 확대 • 고령자 주거 안정법 제정 추진 • 고령자용 임대 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보건 복지부, 2010년)

<그림 17> 제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교학사, 2012, 288)

2단원 외국인의 유입과 다문화 사회에서는 우리의 인구 변화가 외국인 유입의 원인이 되었으며, 외국인 유입이 단순히 3D업종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고임금 근로자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국제결혼이 단지 농촌 지역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개발에서는 우리나라 국토 개발 정책의 변천사와 문제점 등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 불평등이 경제 발전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음을 ‘도움자료’ 〈그림 18〉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도움 자료 | 지역 불평등, 과거에도 있었다.

1900년대 서울의 모습 태양은 서울에만 뜨는 것이고 지방은 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모든 코레아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언젠가 서울은 꼭 한 번 순례해야 할 성지이다.

이방인이 아무리 파리나 런던의 찬란함을 늘어 놓고 뉴욕의 고층 빌딩이나 열대 지방에 있는 풍성한 화원의 호화로움에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더라도 한국인이 꿈에 그리는 서울의 대로와 굳건한 성곽과 장엄한 성문들, 임금이 사는 대궐, 우아한 시민들, 그 전투적인 서울의 위용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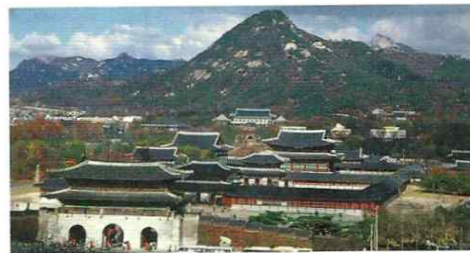
이탈리아 사람들은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고 외친다면, 한국 사람들은 “한양을 보고 천국을 알라.”라고 할 것이다.

이손 그렙스트*

*이손 그렙스트 : 스웨덴 기자로 러·일 전쟁 취재를 목적으로 도쿄에 입국한 이후 한반도 취재를 위해 몰래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1904~1905년 조선을 관찰하였다.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주는 가훈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살게 하였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서만 살게 하겠다.

만약, 집안의 힘이 쇠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을 유지하다가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다산 정약용)



▲ 서울 경복궁

〈그림 18〉 도움 자료 - 지역불평등, 과거에도 있었다. (교학사, 2012, 298)

마지막 단원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는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를 여러 가지 국제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등을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마무리 한다.

3. (주) 금성출판사

I.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1. 국토 인식의 어제와 오늘
2.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
3. 통일 국토의 잠재력
4.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국토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I

1. 우리나라의 지역구분
2. 지리 정보와 지리 조사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토의 문제
2.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국제결혼
3. 개발에 따른 지역 갈등과 해결
4.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 공간의 미래

(주)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우리나라가 바닷길과 하늘길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개념과 중요성,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을 토대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1단원 ‘국토 인식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국토관의 의미와 이를 이용, 보전하기 위해 올바른 국토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을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경제 발달로 인한 국토 변화에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이 경제 개발과 더불어 국토를 개발·이용하는 정책을 설명하며 성장 위주의 국

토 개발이 낡은 부작용과 국토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오늘날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국토를 건설하고 국토 생태망을 구축해야 함을 연결해 설명한다. 또한 생각 넓히기 <그림 19>에서는 일제가 왜곡시킨 국토관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왜곡시킨 국토 사례를 찾게 함으로서 우리 국토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일제가 왜곡시킨 국토 이미지

서울시는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끊어진 창덕궁, 창경궁과 종묘의 고궁 녹지를 연결·복원할 계획이다. 원래 조선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시던 종묘는 창덕궁, 창경궁과 함께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1931년 지금의 울곡로를 개설하면서 일본식 육교로만 연결되었다. 서울시는 울곡로의 지하화와 더불어 일제가 없애버린 담장과 북신문(北神門)도 복원하여 세계 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 | 서울시청, 2011. 5. 2.]

↑ 창덕궁과 종묘(1902년) ↑ 창덕궁과 종묘 사이의 도로

생각해 보기 일제가 강제로 훼손한 국토 개발 사례를 찾아보자.

<그림 19> 생각해 보기 - 일제가 왜곡시킨 국토 이미지 (금성, 2012, 16)

2단원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에서는 수리·지리·관계적 위치와 우리나라 4극을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

더 알아보기

수도권 속의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 내의 특정 지역에 정착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토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다문화 마을이라고 한다. 다문화 마을은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이며, 한국인에게서는 독특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 주재원,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 등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수는 2009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생긴 다문화 마을이 서울에만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출처 | 국가브랜드 위원회]


◀ 수도권 내 다문화 마을

<그림 20> 더 알아보기 - 수도권 속의 세계 (금성, 2012, 22)

3단원 ‘통일 국토의 잠재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국토 분단의 문제점 그리고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자료 <그림 21>를 통해 학습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통일의 긍정적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7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할까?

【자료 1】 어느 새터민의 글



저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미용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인지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책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2】 연령별 이산가족 등록 현황



(통일부, 2010)

【자료 3】 탈북 입국자 수 현황



(통일부, 2010)

- 1 【자료 1】로 파악할 수 있는 남북 분단의 문제점을 적어 보자.
- 2 【자료 2】, 【자료 3】을 보고 통일을 빨리 이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 3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다는 전제 아래 통일의 긍정적 전망을 빈칸에 써 보자.

항목	남한	북한	긍정적 전망
인구	4,875만 명	2,338만 명	인구 7,213만 명의 중간 국가가 되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비슷한 규모로 국제 사회의 지도 국가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면적	10만 km ²	12,3만 km ²	
명목 GNI	1,069조 원	29조 원	북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새로운 성장 활로가 되며, 우리 기업의 시장이 넓어진다.
석탄 생산량	248만 톤	2,550만 톤	

(2009년 기준)

<그림 21> 활동7 -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할까? (금성, 2012, 27)

4단원에서는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를 우리의 영원한 한국 땅이며,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영토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각 넓히기 <그림22>에서는 세계지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세계지도에 표시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학생들이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도를 꼭 지켜야 함을 알려준다. 또한 간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지리적 시각에서 본 간도와 미래 간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생각 넓히기

세계 지도가 달라진다

▲ 아국총도(18세기 후반) ▲ 스위스 세계 지도(2002년) ▲ 미국 타임즈 북스(뉴욕 타임즈)(2004년)

세계 지도에서의 동해 표기의 경우, 1700년대에는 한국 해가 많은 편이었는데 18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제 수로 기구(1929년)에서 발행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지침서에 일본해가 표기되어 각국의 지도 제작사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부터 ‘동해’의 영문 표기인 ‘East Sea’의 확산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주요 언론이나 간행물, 지도 상에 ‘East Sea’가 ‘Sea of Japan’과 함께 표기되거나 단독 표기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일본해’의 영문 표기인 ‘Sea of Japan’이 널리 사용되어 온 상황에서 ‘East Sea’ 표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보기 ‘동해 명칭 바로잡기’를 통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림 22> 생각 넓히기 - 세계 지도가 달라진다 (금성, 2012, 27)

Ⅵ 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서는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테마여행’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국토 공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다. 또한 I 단원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 부분의 영해와 직선기선, 대한해협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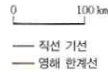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국토 공간

우리에게 부모님이 정해 주신 이름과 함께 친구들이 붙여 준 별명이 있듯이, 우리 국토의 각 지역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주로 땅과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이 활용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대체로 지형지물이나 시설물, 방위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 많다.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우리 하늘에도 이름을 한 번 붙여 보는 것은 어떨까?

관서·관북 지방

관서 지방은 평안남·북도 일대, 관북 지방은 함경남·북도를 각각 지칭한다. '관(關)'은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에 있는 **철령관**을 의미한다. 북방 민족과 영토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던 철령관의 서쪽이 관서, 북쪽이 관북이다.



관동 지방, 영동·영서 지방

관동 지방은 철령관의 동쪽으로서 강원도 일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원도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각각 영동과 영서 지방으로 불린다.

황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해 있어 서해라고도 불린다. 평균 수심이 44 m이고, 가장 깊은 곳이 103 m로 전체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빙기 때 육지였던 산맥의 일부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는 과정에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게 되었다.

동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조경 수역의 특성상 황금어장을 이루며 최근 해저 자원 개발 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호남 지방

전라도 일대를 지칭한다. 호남의 '호(湖)'는 김제의 벽골제를 가리킨다는 설과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영남 지방

경상도 일대를 지칭한다. 영남의 '영(嶺)'은 고개를 가리키는 말로 **죽령, 조령, 추풍령** 등 소백산맥의 주요 고개들을 말한다. 특히, 조선 시대까지 소백산맥의 제1 고개는 **조령**이었으므로 **조령(새재)** 이남을 영남이라 불렀다.

남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만입부 곳곳에 입지 여건이 좋은 항구가 많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연중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 변화가 적어 양식업이 발달하였다.

더 알아보기

직선 기선과 영해

우리나라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해는 직선 기선 또는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한 12해리까지(**대한 해협**은 3해리)이다.



지리 부도를 보고 철령, 대관령, 조령, 대한 해협의 위치를 찾아 위 지도에 표시해 보자.

<그림 23> 테마 여행 -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국토 공간 (금성, 2012, 167)

지리정보와 지리조사에서는 공간, 속성, 관계 정보와 GIS, 지리조사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

VIII 단원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나열, 인구 피라미드와 함께 제시하며, 최근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인구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며, ‘생각 넓히기’ <그림 24>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실버 산업이 발전하지만, 이들이 은퇴 후 소비 주체로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제시, 고령화 현상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생각 넓히기

고령화 현상의 분수령,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6·25 전쟁 직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제품 판매 전략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노년층을 목표로 한 각종 편의 용품과 식품, 의료 및 건강 보조 제품, 직업 알선 및 교육에 관련된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 독립된 소비 주체로서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수년 동안 축적된 숙련 기술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채용 박람회를 찾은 노령 인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때 성장할 산업과 위축될 산업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림 24> 생각 넓히기- 고령화 현상 (금성, 2012, 226)

앞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짧게 언급했던 것을 중 단원 2.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국제 결혼’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나라에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등지에서 외국인이 이주하며 이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꺼리는 3D업종에 취업해

국내 인력난을 해결 하였지만, 낮은 임금과 불리한 대우의 사회 문제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였는데 이 때 일어나는 문제점과 우리의 인식 개선과 국가 제도적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3단원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해 지역 갈등과 공간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지방 개발 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함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 단원은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설명, 앞으로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다.

4. 비상교육

I.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1. 국토의 의미와 정체성
2.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이해
3. 동북아시아 국가의 국토 통일의 당위성
4. 주변국과 관련된 영역 문제

VI. 우리 나라의 지역 이해 I

1. 지역과 지역 구분
2.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저출산 · 고령화 현상

2.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다문화 사회
3. 지역 개발과 공간적 불평등
4.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비상 교과서는 국토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능력 등을 키우는데 중요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와는 다르게 처음 본문부터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산임수 지역이 취락 입지에 유리한 이유와 ‘세종실록지리지’와 ‘택리지’를 통해 <그림 25>지리정보 기술 방법을 비교하는 자료를 주고 학습자에게 의사능력을 먼저 묻고 있다.

사례2 세종실록지리지-유성구 진잠동 일대 기록

본래 백제의 진현현인데, 고려에서 진잠으로 고쳐, 현종 9년에 공주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3년 계사에 현감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공주에 이르기 7리, 서남쪽으로 연산에 이르기 13리요, 호수가 153호요, 인구가 583명이다. 군인은 시위군이 1명이고, 수성군이 2명, 선군이 92명이다. 성(姓)이 3으로 김·이·전이다. 땅이 기름진 것이 적고 메마른 것이 많다. 개간한 밭이 1,480결이요, 오곡과 뽕나무에 적당하다. 공물은 느타리·자리·여우가죽·죽제비털·잡깃이다. 성 북동에 도기소가 1곳이다.

사례3 택리지-유성구 온천 1·2동 일대 기록

동쪽은 회덕현이고, 서쪽은 유성촌과 진잠현이다. 동서의 두 산이 남쪽에서 평야를 끼고 돌아 북쪽에 이르러서 합치었고, 또 높게 사방을 산으로 막아 가운데를 둘러쌌다. 평평한 언덕과 산은 길고 구부러지고 어여쁜 산기슭은 맑고 깨끗하다. 구봉산과 보문산이 남쪽에 높이 솟아 그 맑고 깨끗한 기상이 거의 한양의 동교(東郊)보다 낫다. 논밭은 매우 좋고 또 넓으나 다만 바다에서 다소 멀어 서쪽에 있는 강경에서 교역하는 것에 의지한다. 그러나 강경과의 거리는 100리를 넘지 않는다.

생각해 봅시다

01 배산임수 지역이 취락 입지에 유리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자료 1, 2**

02 “세종실록지리지”와 “택리지”의 지리 정보 기술 방법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자료 3**

<그림 25> 세종실록지리지와 택리지 (비상, 2012, 11)

전통적인 국토인식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며 조선 전·후기 지도와 지리서,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인식의 변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용과 일제 강점기, 경제 개발기, 오늘날 생태 공간으로서의 국

토의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단원인 ‘세계화 시대의 국토 이해’에서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수리, 지리, 관계)을 설명하고 대척점이 무엇인지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국토 생활의 변화를 많은 자료를 통해 제시 <그림 25>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3 우리나라 주변의 열강들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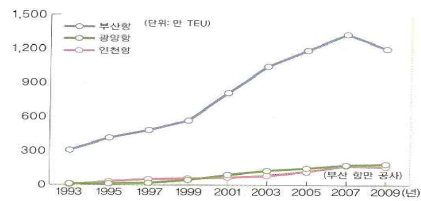
명 칭	주요 회원국과 활동
국제 연합(UN)	• 세계 196개국,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 평화 유지군으로 여러 나라에 파병
주요 20개국 모임(G20)	• G7,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20개국 • 2010년 정상 회의 서울 개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30개국 •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 연안 21개국 • 한국이 창설 주역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들,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

6 동북아시아의 중심,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바닷길, 땅 길, 하늘길 모두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기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이다

7 바닷길, 부산항



▲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전략에 따라 부산항(2009년, 세계 5위)과 광양항에 이어 인천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이 주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항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26>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국토변화 (비상, 2012, 19,21)

3단원 동북아시아 국가와 국토 통일의 당위성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고 주변 국가의 교류의 중요성과 국토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일의 잠재력과 남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중요하게 학습시키고 있다.

4단원 주변국과 관련된 영역 문제는 먼저 독도의 여러 사진들을 주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비상교과서는 간도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녹둔도 <그림 27>의 위치와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고문헌에 나타난 녹둔도를 통해 녹둔도의 반환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게 하여 학습자들에게 국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4 간도의 지리적 위치

6 세종실록지리지의 녹둔도

“조선 세종 때 6진(鐵)을 개척한 이래,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하여 섬 안에 길이 1,246척의 토성을 쌓고 높이 6척의 목책을 둘러 병사들이 방비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배를 타고 섬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농민들은 상주가 금지되었고, 춘경 추수기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5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다.

▲ 백두산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1909)
일본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제작한 지도로 토문강(土門江·적색 원)과 두만강(豆滿江·청색 원)은 다른 강이며 두만강 북서쪽에 토문강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7 세조실록의 녹둔도

세조는 함길도 도절제사인 양정과 도사 강효문에게 “조산구자(趙山口子) 녹둔도 농민이 들에서 일할 때 야인들이 배를 타고 침입하여 약탈할 것이 우려되므로 진장(鎭將)과 만호들에게 엄중히 방비하라.”라는 밀유(密諭)를 내리다.
(세조실록)

8 녹둔도에 관한 임시 국회 대정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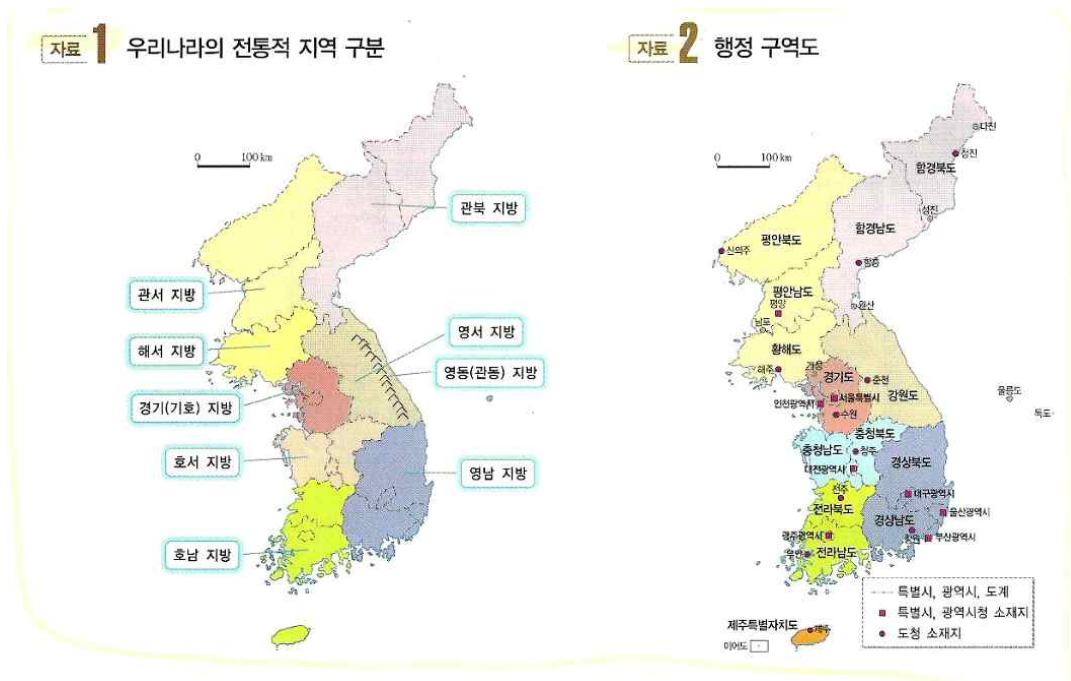
러시아는 작년 9월에 20세기 초 영토 분쟁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아무르(헤이룽) 강의 2개 섬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편 러시아가 우리의 옛 영토인 녹둔도(鹿屯島)의 반환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녹둔도는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 당국자 사이의 국경 회담에서 다시 관심을 모았지만 미해결로 남았고, 우리는 1990년 러시아 측에 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녹둔도를 반환 받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의 정부의 반환 노력은 무엇입니까?
(○○○ 의원, 임시 국회 대정부 질문 2009.2.16.)

탐 · 구 · 활 · 동

- 1 두만강을 경계로 한 국경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 국경을 비교해 보자. [4][5]
- 2 녹둔도의 반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자. [8]

<그림 27> 탐구활동 - 녹둔도 (비상, 2012, 31)

Ⅶ 단원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구분과 행정구역도 <그림 28>를 제시하며,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 구분 방법과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인지 지역과 내포지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지리정보와 지역 조사 단원은 다른 교과서와 비슷한 구성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림 28> 자료 - 우리나라의 지역구분 (비상, 2012,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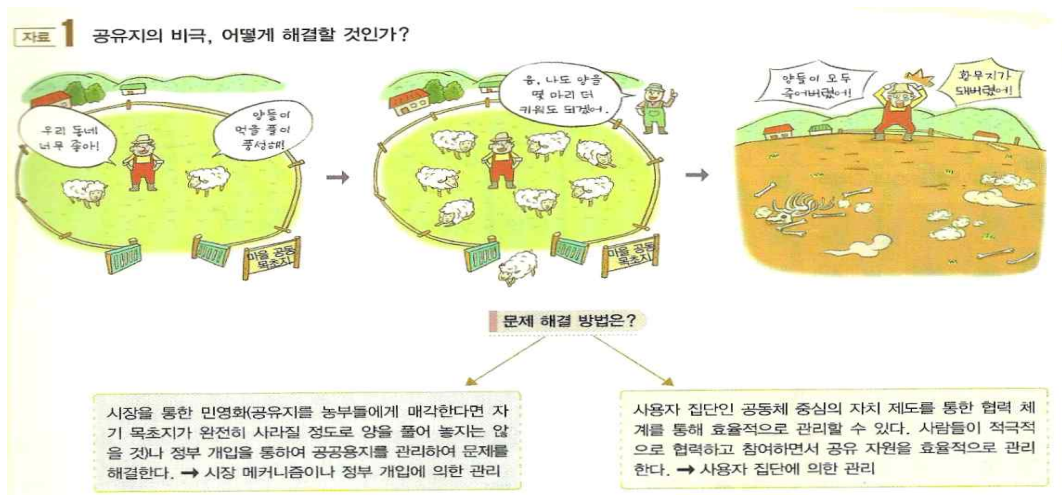
Ⅷ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포스터를 통해 인구 특성 변화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인구 특색과 인구변화를 설명한다.

중단원 2.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다문화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고 세계화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 여성 유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을 설명,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 에서 ‘다문화 사회’ 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방향을 동화주의 보다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 사회 통합 교육과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함을 제시한다.

3단원 ‘지역 개발과 공간적 불평등’ 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하향식 개발 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이며, 이를 위해 공장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최근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 지역 간 격차 심화는 국민 통합 저해와 장기적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 개발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그 지역의 개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낙후 지역을 적극적인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개발해야 함을 나타낸다.

4단원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더 윤택하고 화려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 뒤에는 자연의 값진 희생이 뒤따름을 자료 <그림 29>를 보여주며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성, 환경정의, 경제적 지속성, 생태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등의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 국토 개발과정과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단원을 정리하고 있다.



<그림 29> 자료 - 공유지의 비극 (비상, 2012, 302)

5. (주) 교학도서

I. 세계화 시대의 국토인식

1. 우리 국토의 의미와 국토인식
2. 세계 속의 우리나라
3. 동북아 협력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
4. 우리 땅 독도와 민족의 삶터 간도 지방

V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I)

1. 지역의 개념과 지역 조사

VIII.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출산율의 저하와 노인 인구의 증가
2. 늘어나는 외국인, 다양해지는 문화
3. 지역 개발과 국토의 균형 발전
4. 미래 국토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교학도서는 우리에게 내 땅, 내 나라가 있다는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례탐구를 제시해 응용력과 적용력 향상을 위해 본문 내용과 연계된 사례 지역이나 지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단원 하나씩에 ‘지리 답사반 활동 일지’ <그림 30>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답사를 직접 하듯이 흥미롭게 지리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름다운 옛길 관동대로(關東大路)를 걸어 보자.

'관동대로'는 조선 시대에 한양과 경기 지방의 동부와 강원도를 잇던 길이다. 경상북도 울진의 평해읍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거쳐 대관령을 건너 한양으로 이어진 길이어서 '평해로'라고도 한다. '관동대로'는 사라져 가는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국토 박물관이며 지리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네 삶의 흔적을 품고 있는 길이다. 올해 여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옛길의 일부 구간이라도 걸어 보면 어떨까?


- 1 답사 주제 : 관동 지방으로 가던 옛길, '관동대로' 답사
- 2 답사 지역 :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 3 소요 기간 : 2주일 내외
- 4 답사 경로 : 경북 울진 → 강원도 강릉 → 강원도 원주 → 경기도 양평 → 서울(약 480km)
- 5 답사 주안점 : 관동대로를 따라 걸으면서 발견하는 국토의 변화

대관령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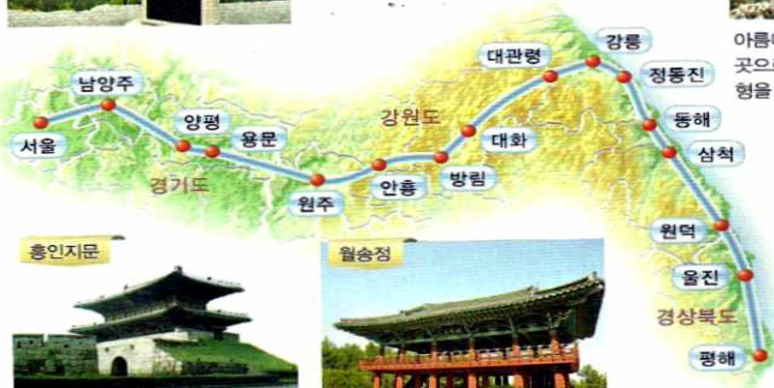


옛길의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고원 지형을 만날 수 있는 곳


정동진 현화로



아름다운 해안 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해안 단구 및 여러 해안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




흥인지문



동쪽으로 뻗어 나간 옛길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

월송정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소개된 관동대로의 종착점

<수행하기>

사전 조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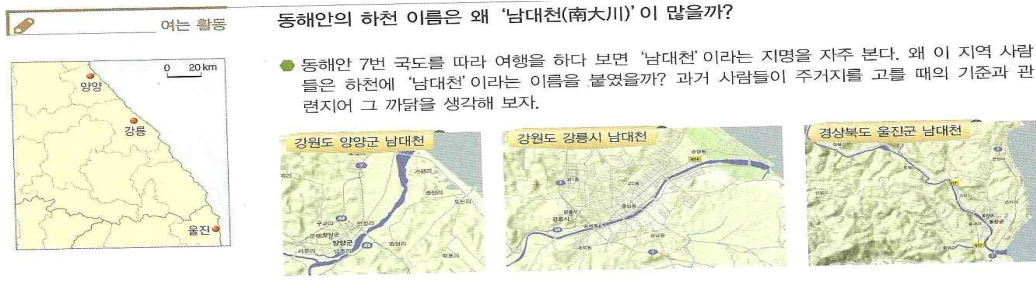
- ① 옛길이 오늘날 어떻게 관광 상품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② 관동대로 일부 구간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문학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동대로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해 보기

- ③ 옛길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지 고지도와 현재 지도를 비교해 보자.
- ④ 옛길을 걸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취락의 형태와 주요 지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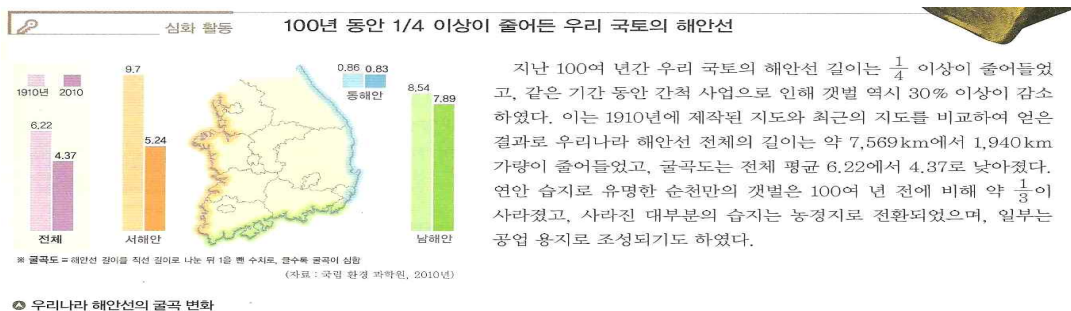
<그림 30> 지리 답사반 활동 일지 (교학도서, 2012, 37)

먼저 1단원인 ‘우리 국토의 의미와 국토 인식’에서는 ‘여는 활동’을 통해 동해안의 하천 이름이 왜 ‘남대천(南大川)’이 많을까? <그림 31>라고 제시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내용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그림 31> 여는 활동 (교학도서, 2012, 12)

먼저 국토의 의미를 제시하고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국토관에서는 풍수지리 사상, 조선 전·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도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왜곡되었던 국토관과 생태 지향적 국토관의 개발이 다각적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화활동 <그림 32>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변화를 제시하며 갯벌의 중요성과 간척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생태계를 보전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시사하고 있다.



<그림 32> 심화 활동 (교학도서, 2012, 15)

(주)교학도서는 단원 제목에 ‘생태 공간으로서의 우리 국토’ 를 다시 넣어 다른 교과서보다 국토의 개발과 환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사례 탐구 **공업 도시 울산을 통해 본 국토관의 변화**

자료 1 공업 탐과 기념비의 비문

반세기 공업 발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시는 1962년 특정 공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시내 중심가에 ‘공업 탐’이라는 조형물이 만들어졌고, 조형물 아래 기념비에는 당시 공업 발달을 향한 의지를 담은 글이 새겨져 있다.

4천 년 민곤의 역사를 잊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 여가를
신공업 도시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제2
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뿜어 나가는
그날에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
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략)



④ 울산광역시 공업 탐 비문의 내용

④ 울산의 공업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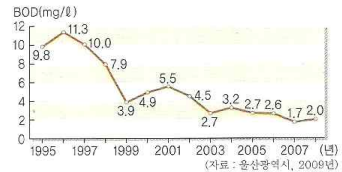
자료 2 태화강의 부활



④ 2010년 태화강 물 축제



④ 태화강 생태 공원



④ 태화강의 연도별 수질 변화 추이

‘죽음의 강’이라 불리던 태화강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1급수 강으로 부활하였다. 또한, 기존의 태화강 변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예상되었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하천 부지로 재편입되어 생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태화강의 변신은 지방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진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자료 3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원



④ 기업에서 조성하여 기부한 울산 대공원

2006년 울산에 위치한 한 석유 화학 기업은 울산광역시가 매입한 공원 부지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 비용을 들여 10여 년의 공사 끝에 대공원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에 기부하였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공원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 시설 위주로 꾸며졌다. 공원의 총면적은 약 369만㎡로 여의도 공원의 16배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렇게 설립된 울산 대공원은 도시의 균형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산업 도시 울산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 발표** 1. <자료 1>을 바탕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한 가치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 조사** 2. <자료 2>를 참고하여 태화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공원을 조성한 배경을 국토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사해 보자.
- 발표** 3. <자료 3>과 같이 환경오염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생태 관련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배경을 발표해 보자.

<그림 33> 사례 탐구 - 공업 도시 울산을 통해 본 국토관의 변화

(교학도서, 2012, 17)

2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리·지리·관계적 위치를 설명하고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 증대를 주변국과의 위치를 통해 바라보고 있으며, 작지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요인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토의 문을 열어 기반시설 확충과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 도시와의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3단원 동북아 협력과 국토 통일의 당위성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보이며 경제적 위상이 증대되는데, 이 때 한반도의 위치가 결정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격차와 문화의 이질성,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 영토 등의 문제로 마찰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국토의 통일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4단원은 독도의 위치와 독도에 대해 4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의 생태환경에 대해 탐구활동에서 제시해,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때 장점과 단점을 확인시켜 생태적인 관점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 간도를 이해하게 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대부분 서술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Ⅶ 단원은 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며,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토착지역에 대해 ‘읽기자료’를 통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리정보에서는 통계지도와 그래프,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카르스트의 지형도를 읽고 이 지역의 특성을 찾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Ⅷ 단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로 ‘여는 활동’ <그림 34>을 통해 ‘에이지퀘이크(agequake)’를 설명하며 이 단원을 시작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대비책과 지역별 차이를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그림 35>으로 산업과 공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3단원 지역 개발과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 그 지역의 투자를 할

성화 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다.

여는 활동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 에이지퀘이크란 무엇일까?

인구 대재앙 Agequake 9.0

세계 저출산국 순위(합계 출산율, 단위:명)

1	1.15	대한민국
2	1.2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	1.25	몰타
4	1.26	일본
...
242	7.01	니제르

※ 대한민국은 2009년 통계청 자료
(자료: 세계 인구 현황, 2010년)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고령화가 사회에 가져올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에이지퀘이크(agequake)'라고 표현했다. 2020년 무렵에는 세계 경제가 에이지퀘이크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 강도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왼쪽 자료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자.

〈그림 34〉 여는 활동 - 에이지퀘이크란? (교학도서, 2012, 242)

읽기자료 서울 속 외국인 거리

서울에 조성된 외국인 공동체는 2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들은 출신 국가별로, 혹은 상업 지역이나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모슬렘 거리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이 주로 모인다.

필리핀 거리
네팔 인 거리
러시아·중앙아시아 촌
몽골 타워
독일 커뮤니티
프랑스 인 서래 마을

엔벤 마을
구로 공단의 공장들이 이전하고 디지털 산업 단지로 변모하면서 한국계 중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서래 마을
국내 거주 프랑스인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으며, 프랑스 국기와 프랑스어 안내 표지판, 프랑스 학교 등을 볼 수 있다.

'작은 마닐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일요일마다 필리핀 음식과 향신료 등을 파는 시장이 열린다.

〈그림 35〉 읽기 자료 - 서울 속 외국인 거리 (교학도서, 2012, 250)

마지막 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정 무역과 슬로시티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국토의 미래상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녹색 성장의 관점에 맞추고 있다.

(주)교학도서는 여는 활동을 통해 시사적인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며, 인구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단원을 다른 교과서보다도 지역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토 인식에 있어서는 생태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지리 교과서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5종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 풍수관, 국가의 영역, 우리나라의 위치와 통일 국토, 그리고 독도와 간도에 대해 I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VI 단원은 지역조사와 지리정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데,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지도 읽기' 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것은 1학년 공통사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조사 단원은 일본의 교과서에도 제시가 되고 있었으며, 각 교과서별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영토를 학습할 수 있게 제작되고 있다.

VIII 단원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인구문제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개발에서는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방법과 개발에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을 하여 우리 국토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금성출판사, 중앙진흥교육연구소, (주)지학사 등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오늘날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국토인 생태학적인 관점과 조상들의 국토관을 추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영역과 위치에 대한 비중도 더욱 심도 있고 자세히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탐구활동' 이나 '역사속으로' 라는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간도’ 라는 단원이 추가 되었으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도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약인 간도협약(1909)과 우리 민족의 간도 지배 역사를 근거로 회복해야 할 영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4극 지점을 제시하며 독도와 이어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설명, 우리 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활발한 국가간의 인구이동과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며, 환경과 관련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추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미지의 지역축제나 상호보완을 이루는 지역개발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힘써야 함을 설명,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지역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교과서가 변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단원은 많이 달라진 변화 내용은 없었으며,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었음을 짐작해본다.

한국지리 교과서는 영토와 국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전 교과서보다 더욱 보강되고, 자료나 근거를 많이 제시함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 내용

용어	출판사	(주) 천재 교과서	(주) 교학사	(주) 금성 출판사	(주) 비상교육	(주) 교학도서
국토		○	○	○	○	○
풍수지리		○	○	○	○	○
위치		○	○	○	○	○
4극		○	○	○	○	○
영역		○	○	○	○	○
국토 통일		○	○	○	○	○
독도와 간도		○	○	○	○	○
이어도		○	○	○	○	X
지도 읽기		X	○	X	X	X
지역 조사		○	○	○	○	○
인구 문제		○	○	○	○	○
다문화 사회		○	○	○	○	○
지역 개발		○	○	○	○	○
지속가능한 발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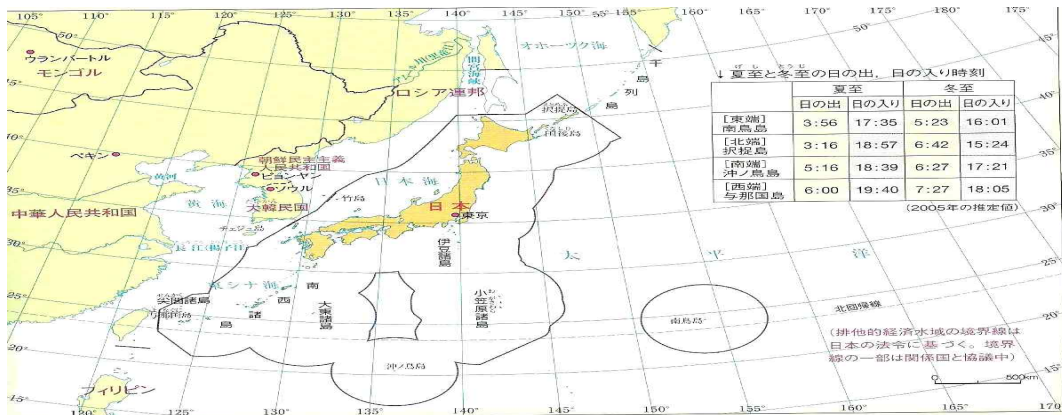
IV. 고등학교 일본 지리A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 분석

1. 도쿄쇼세키(東京書籍)

제1편 현대세계의 특색과 관점

- 1장 구면상의 세계와 지역구성
- 2장 연결되어 가는 현대세계
- 4장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의 진전

東京書籍는 1장에서 대륙과 지구가 움직인다는 소단원을 주제로 해 구면의 지표를 평면에 투영한 지도에서 실제 위치, 면적, 바다와 육지의 비율(7:3)을 말하고 있다. 표준시가 1884년 국제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정함과, 일본에서는 효코켄아카시시를 지나는 동경 135°를 설명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서는 국가의 3요소인 영역, 국민, 주권과 영역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그림 36>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경을 자연적 국경과 인위적 국경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명하며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은 지도를 넣고 있다.



<그림 36> 사례탐구-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東京書籍, 2012, 13)

국가의 영역과 생활에서는 국제적인 영토 분쟁이 생긴 원인이 하천 유로 변경, 자

원 분배,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 국경선 재검토, 경제수역 확보를 명목으로 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영토 분쟁이 일어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북방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대한 주변국간의 문제를 역사적인 순서로 짚고 있다.



①1854年の日露和親条約 ②1875年の樺太・千島交換条約 ③1905年のポーツマス条約 ④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⑦北方領土の変遷 北緯50度以南の樺太と千島列島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1951年)では、どこの国の領土にも属さない未確定領域とされた。日本の地図において、図④のように「国境線」が二本引かれ、陸地部分を白く表現するのは、このためである。

- | | | | |
|----------------|--------------|---------|-------------|
| ① 1854년 일로(日露) | ② 1875년 가라후토 | ③ 1905년 | ④ 1951년 샌프란 |
| 화친조약 | · 치시마 교환조약 | 포츠머스조약 | 시스코 평화조약 |

〈그림 37〉 북방 영토의 변천 (東京書籍, 20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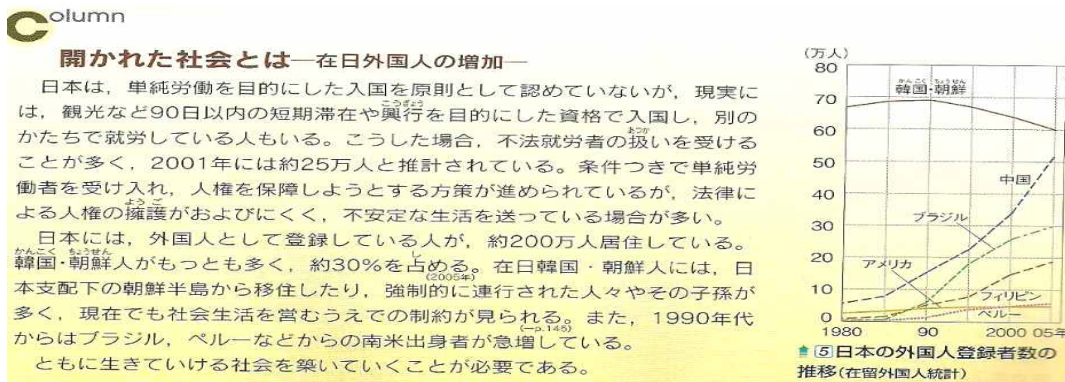
북경 50° 이남의 가라후토와 치시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어느나라의 영토에도 소속되지 않는 비 확정 영토로 되어 있었다. 일본의 지도에 〈그림 37〉④와 같이 국경선이 두 번 그어져 있다.

또한 칼럼에서는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토리섬을 이야기 하며 1994년 발효한 국제연합 조약은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해 그곳의 자원관리를 행하도록 한 규정과 일본 ‘바다의 날’ 설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섬이 침식이나 해수면 변화에 의해 침몰되면 일본은 국토면적을 웃도는 약 40만km²의 경제수역을 잃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화시대에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나타내며 일본 대기

업이 국경을 넘고 일본인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기업이 집중하는 거점도시에 일본인 학교가 계속해서 설립되고, 최근 해외여행을 즐겨하는 일본인이 급증하며,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일본인이 메이지 시대 이후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특히 브라질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음을 이야기 하며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국제 분쟁, 국내의 정치나 종교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난민들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칼럼 제2의 외국인 증가 <그림 38>에서는 관광 등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자격으로 입국해 다른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과 함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사람 중 한국 조선인이 가장 많음(200만명중 20~30%)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펼쳐진 사회란- 제일외국인의 증가 (東京書籍, 2012, 25)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하며 아시아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을 최종 조립국으로 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나라 지역을 부품 공급지역으로 하는 국제 분업성과 물품으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세계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를 지도로 읽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근처 지역의 지역조사 방법을 중요히 설명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안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자료의 저작권의 배려, 방문처의 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지도를 읽을 수 있게 등고선, 기호, 축척 등을 설명하며 골짜기나 능선 읽는 법, 거리 측정법, 면적 측정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skill up <그림 39>은 1975년 습지 보호를 위해 람사르 협약을 설명, 일본 4곳의 세계자연유산(야쿠시마, 시라카미 산지, 시레도코, 오가사와라 제도) 37곳의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화하고 있다.



<그림 39> 무다포(霧多布)습원과 1:50,000의 지형도 (東京書籍, 2012, 57)

2. 교우이쿠숫판(教育出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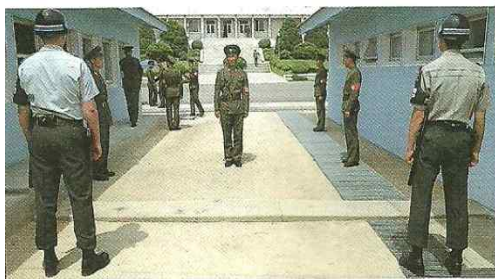
제1장 현대세계를 다양하게 다루는 방법

1절 구면상의 세계와 지역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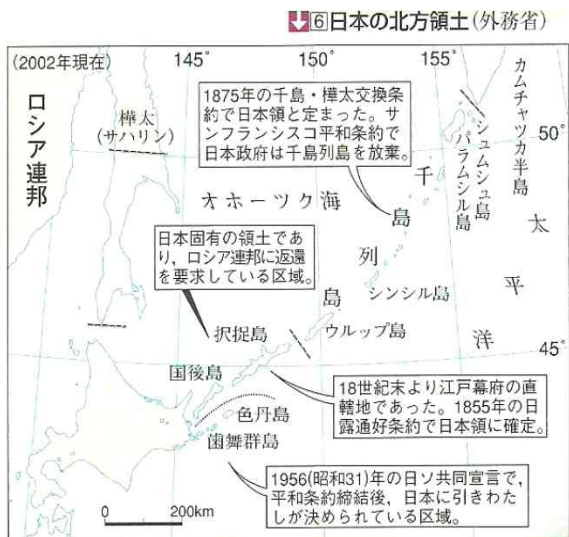
4절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의 진전

첫 단원에서는 지구구형의 이용과 경위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본초자오선이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국으로 선정되었다 하며, 일본의 표준시는 135° 이고, 날짜 변경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루가 빨라진다고 설명한다.

지도의 표현과 실재에서는 지도 제작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객관적 지도의 대표 지형도는 육지측량부(육군기관) 국토지리원이 제작하고 있지만 지도의 기호는 민족성이나 문화가 영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도 표현이 어려운 것은 국경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이 있는 경우이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나 다케시마의 문제가 있음을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40>



⑤ 大韓民國(南)側から見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との境界(판문점) 朝鮮戦争(1950~1953年)の停戦協定で設定された軍事境界線(休戦ライン)。事実上, 国境化し, 向側2kmずつの非武装地帯をはさみ, 両国は対立している。左右の平屋は会議場で, こちらを向いて立っている朝鮮人民軍兵士と手前の国連軍兵士との間の敷石が南北の境界線である(→p.125)。



<그림 40> ⑤ 남쪽에서 본 북한과의 경계

⑥ 일본의 북방영토 (教育出版, 2013, 13)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사할린, 치시마 열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포기했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은 러시아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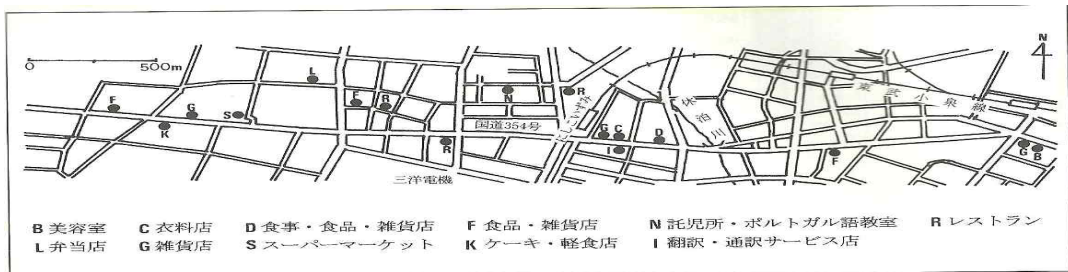
지형도 읽기에서는 지형도가 지표의 사물을 모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장, 생략, 전체적 묘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몇 개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教育出版의 교과서에서는 하자드 맵을 소개하는데 2000년 북해도 우수산의 분화 때 주민이 분배한 하자드 맵이 피난 재택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에 주목하였고, 하자드 맵이 공포되면 지가 하락과 관광객 감소, 주민 불안 등을 유발한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구조 변화와 무역상대국을 설명하며 오늘날 교류가 활발해져 자원, 산업을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 나타났고 일본 기업이 해외로 빠지며 산업공동화가 나타남을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수입상대국인 중국 등 아시아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남을 설명한다. 다국적 기업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일본의 특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며, 다국적화, 기업간 합병, 기술 제휴가 진행되며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모터라이제이션 진전이 현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도 진행되어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시장에 넓혀짐으로 사람들 간의 공통 생활 스타일을 보급시켜 지역에 의한 생활 문화의 차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용의 촉진이나 관련 산업의 발전, 기술이전예의 기대 등으로 환영받는 한편, 공장폐수나 매연 등의 원인으로 공해 발생과 실업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절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 단원에서는 일본의 군마현 오오이즈미 마을을 예로 들어 지역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 그리고 이곳의 국제화를 이야기 한다. 첫째, 지역조사에서는 이곳 군마현 오오이즈미 마을에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이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둘째, 사전조사인 문헌연구, 자료수집, 향토지나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시·구 지형도 비교를 다룬다. 셋째, 현지조사는 관찰, 면담을 필요로 하는데 마을이장과 사전에 연락을 해두고 무엇을 조사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 자료 정리단계 순서로 지역사회 조사를 설명한다. 오오이즈미 마을의 일본인계 사회화 국제화에서는 이곳이 제 2차 세계대전 중 항공기의 생산을 중심으로 군수공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고, 1980년대 후반 공장 발전과 함께 종업원의 부족이 생겼으며, 노동력 부족은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아시아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행해져 왔지만 1990년에 출입국에 관한 법률(입관법)의 개정이 행해져 일본계 사람의 입국조건이 완화 되 노동자로서의 고용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1990년대 이전부터 일본계 브라질 취업인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시기 일본계 사람들의 정보교환과 오락을 요구하는 집회인 ‘남미청년회’가 그 당시 인접하는 현으로부터 사람을 모으는 구심점을 만들어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오오이즈미 마을은 입관법 개정 이후 일본계 브라질 사람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마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급을 마을 내에 모든 초·중·고 학교에 설치하고 일본계 브라질인을 채용해 번역, 통역, 상담 업무에 배치한 지역사회의 대응 모습을 담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전입했으며, 초기 일본계 브라질인 중 브라질색을 전면내내세운 상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후에 폐점한 일본인의 상점을 이용해 식품, 잡화점, 미용실, 의료품점 등을 개업해 국제색이 있는 마을 <그림 41>을 볼 수 있게 됨을 이 지역의 국제화로 설명하고 있다.



11大泉町における日系ブラジル人の経営する店舗の分布 (現地調査ほか大泉町資料により著者作成) 地形図を利用し、調べた情報を落とし込んでオリジナルの分布図をつくってみよう。

<그림 41> 11 오오이즈미 마을의 일본계 브라질인이 경영하는 점포의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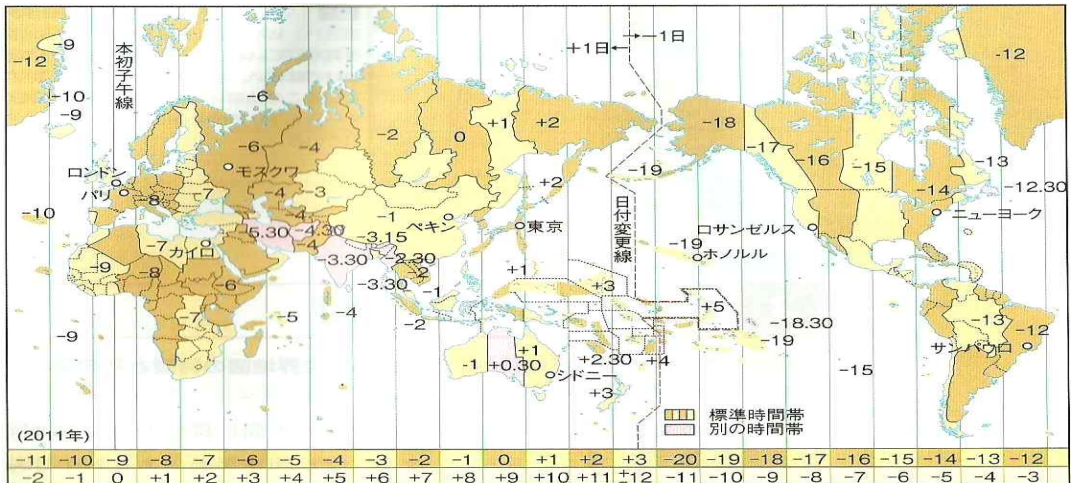
(教育出版, 2013, 13)

3. 세이수이쇼인(清水書院)

제1장 현대사회의 특색과 지리적 기능

- 1장 구면상의 세계화 지역구성
- 4장 주변지역의 국제화와 진전

지구모형을 통해 육지의 모양, 면적, 방위를 설명하며 지구의 표면이 평지나 산지로 울퉁불퉁함을 처음에 다룬다. 지구모형을 통해 절대적 위치는 경·위도로 표시, 19세기말 만국자오선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려 0°로 되는 선을 설정했다고 이야기한다. 마젤란의 항해로 서쪽으로 가면 하루가 늦어지고, 동쪽으로 가면 하루가 빠르다고 설명해 지구의 자전으로 시차가 발생하고 표준시와 날짜 변경선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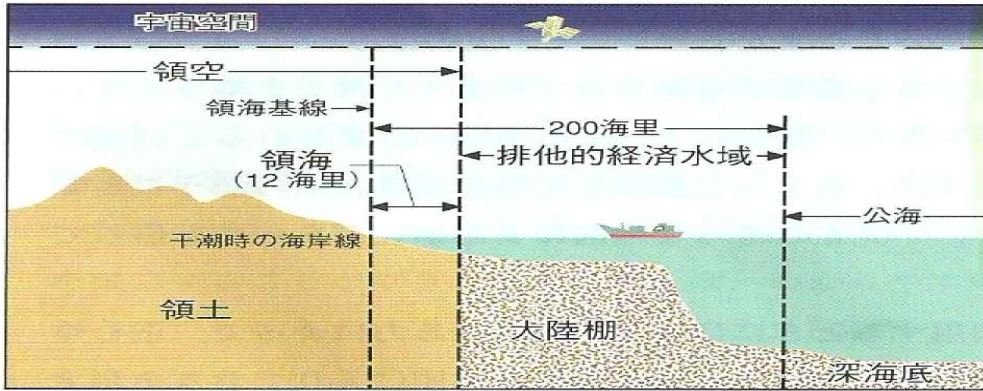


【図2】世界の等時帯 (世界の国一覧表)

〈그림 42〉 세계의 시간대 (清水書院, 2013, 13)

국가의 영역과 국경의 소단원에서는 국가는 국민, 영역, 주권이라는 기본적인 3개의 요소를 갖추며,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일본

의 영해 범위는 이전에는 3해리였는데, 1977년에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 12해리로 변경됨을,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 그 범위의 자원을 자국의 지배하에 두게 됨을 이야기 한다.



〈그림 43〉 영토의 개념도 (清水書院, 2013, 20)

영토의 형태는 국경선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경은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비춰 내고, 자연적 국경과 인위적 국경(수리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경 부근에 민족, 종교, 자원 등의 이해대립의 요소가 있거나, 정치적 대립이 있어 국경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중립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도 설명한다.

일본의 영토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영토문제가 존재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하바마이 군도, 시코탄도, 쿠나시리토우, 에토로후토우의 북방영토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점령 하에 놓여져 왔으며,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 현재 일본은 이들 섬들의 반환을 요구하며, 정치 간의 의견을 나누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일본은 1996년에 해양법 조약을 추진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해나 동지나해에서는 한국이나 중국도 어업협정을 맺어, 어획량의 분담이나 조업 수역의 조정 등이 행해지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소단원 이동하는 사람들에서는 인구이동이 사람들의 교류를 낳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문화나 정보, 기술을 전파해 새로운 문화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낳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한다. 인구이동으로 영국 런던의 예를 주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용의 기회나 수입이 많은 선진국에 개도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이동해 왔음을 설명한다. 또한 정치적, 민족적인 문제에 의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난민 문제를 이들의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정치적 억압, 이주자의 민족들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일본 외국인 노동자가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특히 단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 왔으며 관광목적이나 단기 체류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대로 취직하는 경우가 보여져 왔음을 설명한다. 그 대부분은 중국이나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음을 표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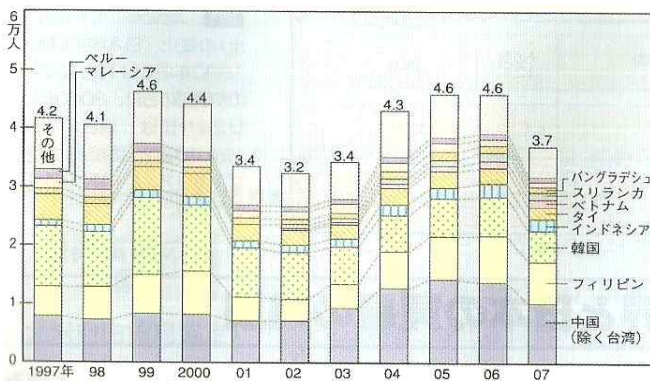


図3 日本の国籍別資格外就労外国人人数の推移 (出入国管理統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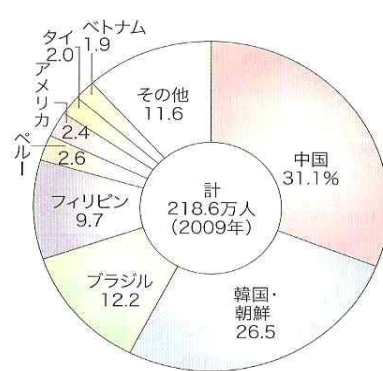


図4 日本の登録外国人の国籍 (出入国管理統計年報)

〈그림 44〉 ③일본의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수의 추이 ④일본의 등록 외국인의 국적

(清水書院, 2013, 33)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해 살면서 교육이나 사회보장, 참정권, 국적부여 등, 인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외국인 노

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과 관련해 인권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있고 받아들이는 나라의 체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원만한 교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새로운 사회의 대응을 찾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1장 마지막 단원은 일본의 무역을 설명하며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이 증가해 일본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해졌으며 흑자액이 커지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무역 불균형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4장 주변지역의 국제화와 진전에서는 정보화 시대 안에서 TV나 컴퓨터의 화면을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실제 현지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해 전혀 다른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지역을 조사 하면 재미를 탐험할 수 있고, 지역조사를 하는 소중함도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은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세계 어딘가에서 대재해가 일어나면 세계각지로부터 원조 물자가 도착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이는 국제화와 보이지 않는 국제화로 설명한다.



국 3 神戸市の友好都市, 姉妹都市 (市政ガイド こうべ)

<그림 45> 3쿠우베시의 우호도시, 자매도시 (清水書院, 2013, 61)

4. 데이코쿠쇼인(帝國書院)

제1부 유대관계를 깊이하는 세계의 이해를 위해서

1장 구면상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

선택장B 주변 지역을 이용해 다루는 국제화

1장 소단원 구면상의 위치에서는 경도와 위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며 일본의 위치를 북위, 동경의 절대적 위치와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할 경우 적도로부터 북극, 남극을 향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세 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차를 찾는 법에서는 시차란 어떤 장소의 표준시와 다른 장소의 표준시의 차라 정의하고 표준시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베이징과 우루무치를 예로 들며, 실제로 이 두 곳의 시차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표준시의 신기함을 제시하며, 미국은 네 개의 표준시가 설정되어지지만, 중국은 베이징 부근을 통과하는 동경 120°의 경선에 따라 설정되어진 표준시가 하나뿐이며, 표준시를 하나로 통일하는 이유는 나라를 다스릴 때의 필요성을 들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즉, 표준시가 꼭 경도 15° 차에 시차가 생기는 것이라는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제시한다.

동경과 뉴욕의 최단거리를 지구모형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는지 제시하며, 지구모형과 지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의 영역에서는 영토, 영해, 영공에서 영해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영해는 해안국의 법령을 지키면 타국의 배도 지나갈 수 있으며, 영해 바깥쪽 해저 자원의 권리가 해안국에게 부여되며, 바깥쪽의 공해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 지역을 설명한다.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진 일본은 이 해역이 매우 중요하며, 일본의 남반에 위치하는 오키노토리섬에서 호안공사 <그림 46>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귀중한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한다.



◀ <그림 46> ⑤ 오키노토리섬의 호안공사

(帝國書院, 2013, 14)

▲ ⑤沖ノ鳥島の東小島(2004年撮影) 波の侵食で島が削られることを防ぐため、堤防やチタン製のネットで守られている。

육지로 이어진 국경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2차 대전 이후 분단 되어 현재 지나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모습 <그림 47>을 제시하고 있다.



▲ ⑥韓国・北朝鮮の非武装地帯の外側を警備する韓国兵 兩國の間には、高いフェンスで囲まれた非武装地帯が設けられている。

<그림 47> ⑥한국·북조선의 비무장지대를 경비하는 한국

(帝國書院, 201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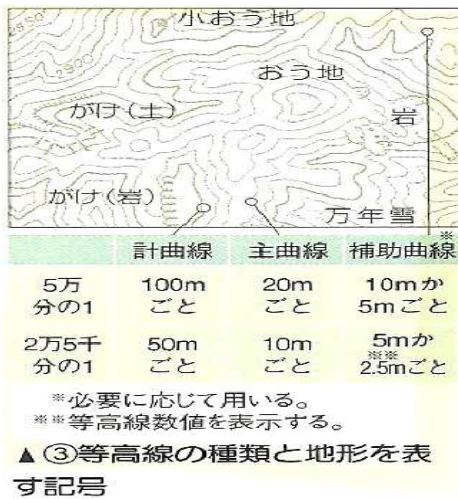
▲ ⑧スーダンの国境 分水嶺とは山地・山脈の稜線をさす。

<그림 48> ⑧ 수단의 국경- 분수계란 산지와 산맥의 능선

또한 산지나 하천을 따라 선정된 자연적 국경과 수단과 이집트 리비아와의 국경이

경위선을 따라 직선으로 그어진 인위적 국경 <그림 48>,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국경과 같이 민족이나 종교의 분배에 의한 경계가 국경으로 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한다.

선택장B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화의 진전이 주변 지역이나 물건에도 나타남을 이야기 하며 주변의 예를 들고 있다.



스킬 코너에서는 지형도 읽기에서 위치와 높이, 모양 등을 계산해 표현함에 따라 지도가 사용되며 근처지역의 지도를 읽고 그 지역의 지역조사 모습을 살펴보고, 국제화의 진전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 49> ③등고선의 종류

(帝國書院, 2013, 45)

5. 니노미야쇼텐(二宮書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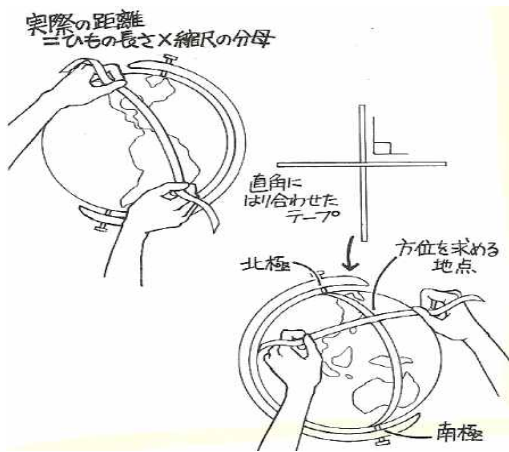
제1장 현대세계의 특색

- 1절 구면상의 세계와 지역구성
- 4절 주변지역의 국제화의 진전

1장에서는 지구의 형태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극 방향으로부터 조금 찌그러진 타원형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루에 1회 자전을 해 시차를 생기게 하고 공전을 통해 기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태양이 남중할 때마다 점심의 12시가 되도록 시각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이 각각 다르게, 태양이 남중할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각을 사용하면 생활상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역에서 표준시 자오선을 설정해 하나의 시각을 사용하는 표준시가 정해진 이유를 설명한다. 일본 영토의 동반과 남반의 경도차는 약 2시간이지만, 동경 135° 선을 표준시 자오선으로 사용하고 러시아나 미국 등 북수의 표준시 사용과 중국에서는 표준시가 1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의 각국에서는 춘분으로부터 추분까지의 점심의 길이를 효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 표준시를 1시간 빨리하는 섬머타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지구상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날짜변경선의 서쪽 키리바시 동부, 날짜변경선의 동쪽 하와이 제도가 하루의 끝임을 날짜 변경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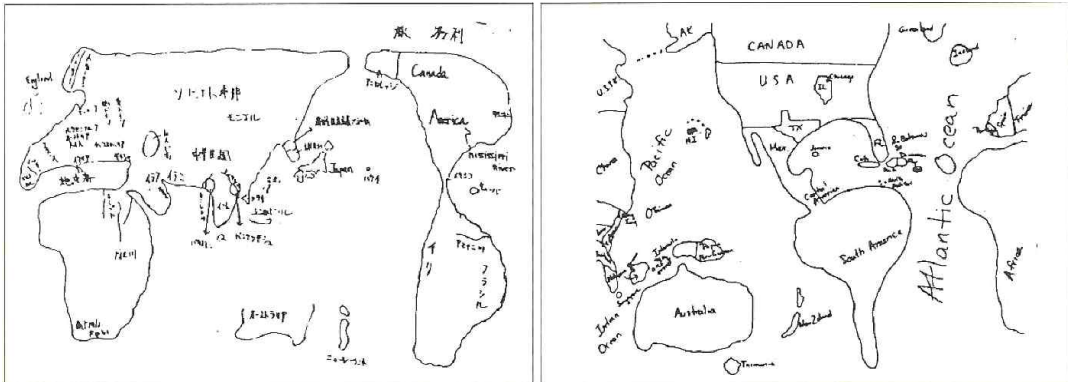


〈그림 50〉 직각으로 붙여 맞춘 테이프

(二宮書店, 20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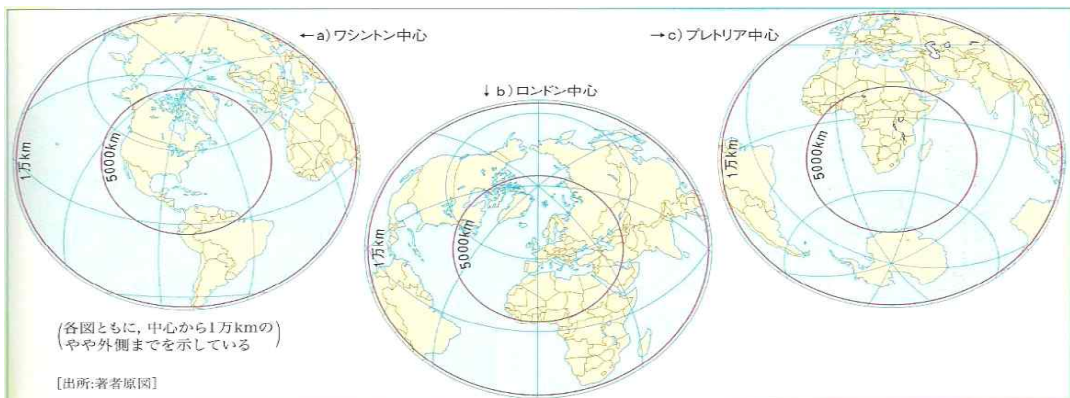
지구모형을 사용해 지구규모로 세계를 볼 수 있게 끈을 맞추어 가장 짧아지는 곳이 최단거리가 되고, 그 선을 대권코스라 불리어진다고 〈그림 50〉을 통해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를 이미지 맵이라 하며, 이미지 맵이 주관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음을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지구모형과 세계지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지도의 간략화를 통해 지리 학습에서 지리적인 사상이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지점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주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펴고 지리적 사상이 발생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머릿속에 세계지도를 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51〉 일본과 미국 고교생의 이미지맵 (二宮書店, 2013, 9)

세계 각국의 위치관계를 통해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해 세계지도로 거리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거도(正距圖)이며, 〈그림 52〉 a)에서 워싱턴으로부터의 거리 위치 관계를 보면 5000km 이내에 에콰도르나 아이슬랜드가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나 서유럽의 각국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에서 런던으로부터의 거리 위치관계를 보면 영국은 아메리카 북동부,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각국에 근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c)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치관계에서는 5000km 이내에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나라밖에 볼 수 없고 아프리카 이외의 여러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여준다.



〈그림 52〉 외국시로부터의 거리관계 (二宮書店, 2013, 15)

경도와 위도로 보는 위치관계에서는 기후와 표준시와 관련해 설명하고, 시간거리로 보는 위치관계에서는 일본과 각국과의 항공기에 의한 시간거리는 직행편이 날고 있는 나라와 거리에 비례하지만, 직행편이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시간거리가 다르게 되어 있음도 나타내주고 있다.

1절의 3단원에서는 일본의 위치를 세계 속에서 바라보고, 일본에서 본 세계에서 대척점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쪽 앞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二宮書店 교과서는 일본의 영역을 세계적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비교해 일본의 영토가 1/45이며, 영해는 최저 조위선 으로부터 12해리로 하는 나라가 많지만, 페루 등은 200해리로 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1994년에 발효한 UN해양법 조약에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이 결정 되었으며, 일본은 국토면적의 약 10배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나라임을 나타낸다.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치시마 열도를 포기했지만, 북방영토는 소련이 점령한 채로 되어버려 소련에 대해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계속 했지만, 교섭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북방영토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은 서로의 나라가 발행하는 신분증만으로 왕래 할 수 있게 되어 북방영토에서의 일본인과 러시아인과의 우호관계가 깊어져가고 있음도 덧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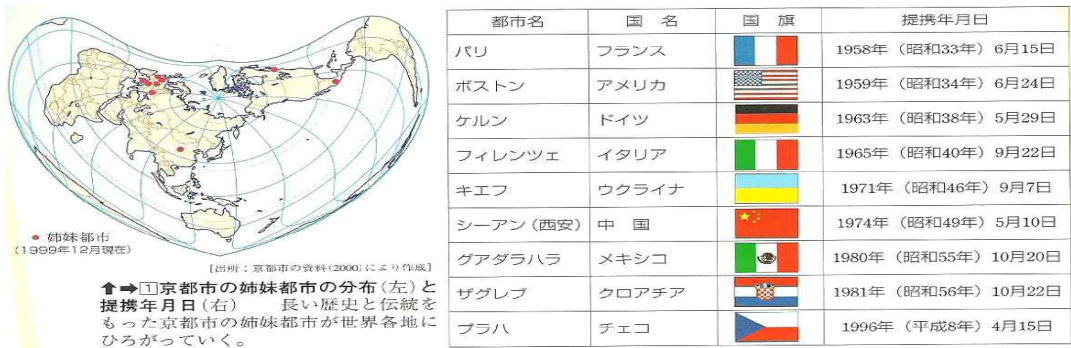
4절 가까운 지역의 국제화의 진전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제품이 공급되어지고, 다양한 외국과의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첫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증가하는 해외여행이나 범람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국제화가 무엇인지, 국제화를 읽어내기 위해 국가 간의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식생활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식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량 자급률 저하가 농업규모가 작고 식량 수입 자유화에 의한 쌀 외국의 농축산물이 들어온 것이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화를 과제로 한 가까운 지역조사에서는 군마현 오오이즈미 마을을 예로 들며 일본에서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체류는 제한되어 있으며, 1990년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정에 의해 일본계 남미인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정주자(定住者)」라는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손부족으로 고민하는 일본 중소기업이 일본계 남미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일본과 세계와의 교류에서는 일본에 오는 외국인이 최근 23년간 약 7배로 증가했으며, 그 80%가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 대만,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며 이에 반해 유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낸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동반해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위험을 동반하는 업종 등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으며, 그 이유가 자국의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본에의 취업형태에 매력을 느꼈다고 이야기 한다. 단순노동으로 한 직업은 일본계 남미인등을 제외하고 허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일본의 체류 기간을 넘어서 일하고 있으며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95%를 차지해 불법체류자의 문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설명하며 교토시의 예를 들고 있었다. 교토시가 긴 역사 속에서 키워온 전통을 계승해 중국이나 조선반도 등의 외국 문화를 도입하면서 문화나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이것에 기반하여 국제교류가 시민이나 외국인, 외국으로부터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토시가 외국 9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음을 <그림 53> ㉠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 교토시의 자매도시 분배와 제휴 년월일 (二宮書店, 2013, 64)

교토시는 새로운 국제교류의 형태를 찾아 1999년 한국의 진주시와 파트너시티를 제휴해 민간끼리의 교류를 설명, 특정 분야에 한해 교류를 행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모두 교류하는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4〉 ④교토와 진주시의 위치 ▶

(二宮書店, 2013, 65)

↓④京都とチンジュ市の位置
チンジュ市は朝鮮半島南部に位置し、高麗(こうらい)王朝以来の古都として知ら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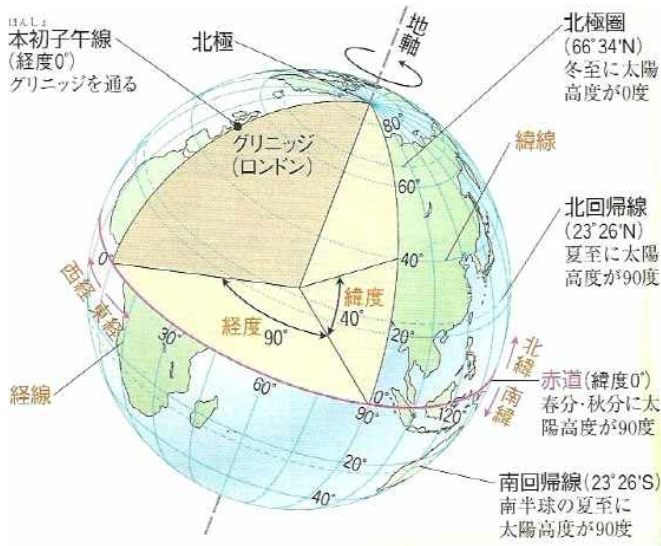
6. 다이이찌가쿠슈우(第一學習社)

제1편 지리정보의 활용과 현대사회의 특색

- 1장 구면상의 활용과 현대사회의 특색
- 2장 글로벌화하는 현대사회
- 3장 다양화하는 세계 사람들의 활동
- 4장 근처지역의 조사

第一學習社 1장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구면이라 인식해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의해 바다를 사이에 둔 세계 각국과의 정보교환이 정치·경제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주야(경도)의 구별, 계절(위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왕래해 왔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지구상의 위치, 즉 세계 각지의 주소(번지)가 위도와 경도로 표시 되는 것을 지구본의 〈그림 55〉②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그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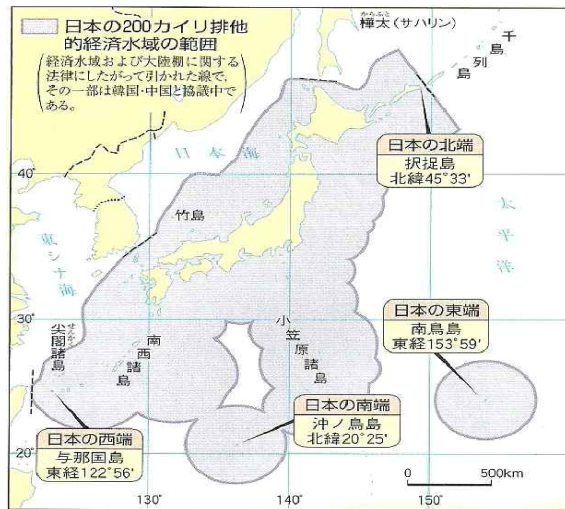
②경선·위선과 경도·위도

(第一學習社, 2013, 8)

세계의 나라들이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을 표준시 자오선이라 하고, 그 바로 위를 태양이 통과하는 시각을 정오라 정해 자국의 표준시라 하며, 러시아나 아메리카와 같이 국토가 동서로 긴 나라가 복수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고도의 변화에 따라 계절과 기후대가 형성되며, 일본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자리 잡은 호주의 크리스마스과 북유럽의 백야 현상 등이 지구 모형을 이용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오늘날의 세계가 글로벌화의 시대이며, 각각의 국가는 고유의 영역을 가지며, 국민과 함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3요소를 설명한다.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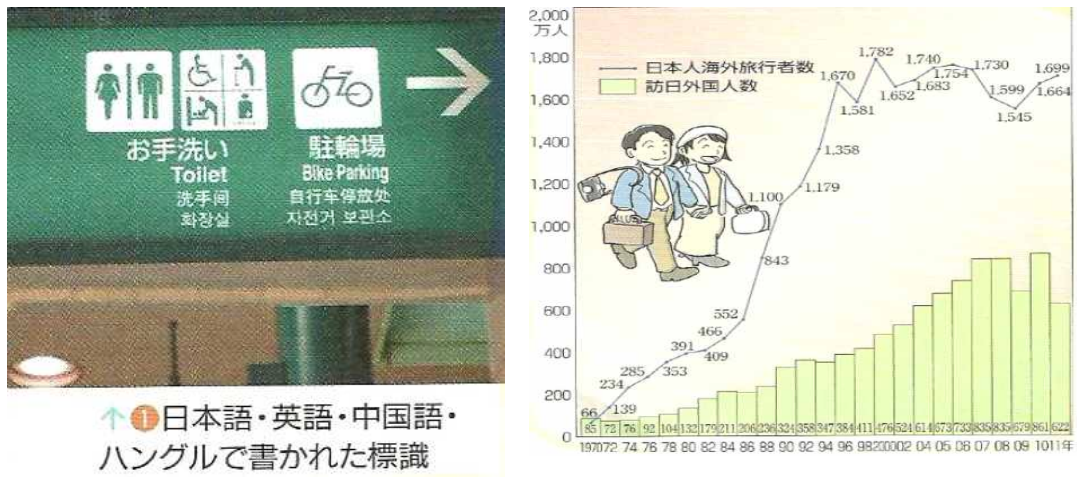
<그림 56> ⑤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

(第一學習社, 2013, 17)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의 영역이 접하는 경계가 국경이며, 자연적 국경과 인위적 국경이 있는데 국경이 주변국과의 세력 다툼이나 민족운동 등의 결과로서 성립해 왔지만, 국가 간의 대립이나 민족 분쟁에 의해 국경문제나 영토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 하며, 특히 하나의 민족이 국경을 걸치고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일어나기 쉬우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남시나해에 떠오르는 남사제도의 귀속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등이 오늘날 미해결 문제라고 설명한다.

소단원 사람과의 교류와 물품의 이동에서는 교통수단이나 정보기구의 발달에 의해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한국, 중국, 대만이 많고 도로 표식이나 역등의 안내에 영어 외에 중국어나 한글의 표시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있음을 <그림 57> 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57> ①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로 쓰여진 표식

②해외 여행자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의 추이 (第一學習社, 2013, 24)

한편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약 2배의 사람들이 외국을 방문 <그림 57> ②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를 웃도는 예는 선진국에서 드물다는 설명과 함께 일본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일본의 관광객 유치 정책의 뒤늦음을

지적하는 의견을 나타낸다.

일본은 원재료 뿐 아니라 식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수입하는데 마트에는 세계 각지의 우동이나 낫또, 두부의 원료인 밀이나 콩이 미국이나 호주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이 냉동설비의 발달에 의해 원거리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일본의 대표적 수출 품목이었던 전기제품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장 다양화하는 세계 사람들의 활동에서는 일본에서는 핵가족이나 맞벌이가 많아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주야의 구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이러한 취업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여가 활동이 증가함을 설명하며,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를 여가활동과 그 지역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다양한 지도가 우리 주변이나, 행정, 기업 활동에 이용되어지며, 지도의 종류와 지형도를 읽는 방법을 축척, 방위, 기호 등을 설명하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의 옛날 지도와 새 지도를 비교해, 시대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8〉 ③지형도의 기호 (第一學習社, 2013, 39)

일본의 교과서는 일본의 지리와 세계의 지리를 묶어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세계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과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일본 교과서는 첫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구의 구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초자오선과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어떤 조약에서 몇 년에 설정되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지구 구면상의 위치와 표준시는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이할 만한 것이 우리나라의 지역조사 방법은 조사 주제 설정, 실내조사, 현지 조사 등의 순서에 어떤 조사 방법들이 있는지만을 기술하지만 일본의 지리 교과서(東京書籍)는 사람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저작권 배려, 방문처의 예의 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교과서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教育出版의 교과서는 ‘하드 맵’을 강조, 일본의 자연재해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서 기호가 민족성이나 문화가 영향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의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教育出版과 二宮書店의 지역 조사 방법에서는 군마현 오오이즈미 마을에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 지역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잠깐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북방 영토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독도와 간도’라는 단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에 비하면 특이할 만하다.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그들의 인권과 법규 마련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서가 공통으로 다루는 부분이었다. 清水書院의 교과서는 국제화와 관련해 최근 대재해가 일어나면 세계각지에서 원조물자와 사람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帝國書院의 교과서는 바다로 둘러싸여진 일본의 남반에 위치하는 오키노토리섬에서 호안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귀중한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二宮書店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

는데 시간대에서의 섬머타임 제도나, 대척점 등 다른 교과서에는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여러 도시들의 예를 면담이나 지역조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예로 든 교토시와 진주시의 예도 특이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第一學習社는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분쟁(카슈미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지도 읽기’를 다른 교과서보다도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 1-5〉 일본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 내용

용어	출판사	동경서적	교육출판	청수서원	제국서원	이궁서점	제일학습
국경		○	○	○	○	X	○
국가의3요소		○	X	○	○	X	○
북방 영토		○	○	○	X	○	X
다케시마	지도 제시	○	○	○	X	X	지도 제시
4극		○	○	○	X	X	○
영역		○	X	○	○	○	○
호안공사		○	X	X	○	○	X
하자드맵		X	○	X	X	X	X
구면상 위치		○	○	○	○	○	○
일본의 위치		○	X	○	○	○	○
표준시		○	○	○	○	○	○
대척점		X	X	X	X	○	X
다문화 사회		○	○	○	○	○	○
지도 읽기		○	○	X	○	X	○
지역 조사		○	○	○	○	○	○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한국지리 교과서의 국토 부분과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지리A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양국의 지리교과서는 영토와 국토의 내용을 다루는 점에서는 비슷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한국지리’ 라는 과목 성격상 우리나라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지리A’ 라는 과목 하나에 세계지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루면서 세계의 관점에서 일본 지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양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영토와 국토교육에 대해 배우고 기본적인 학습을 하며, 지리교과서를 통해 국토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패전을 의식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으로 연상되는 용어 영토의 사용을 학교교육에서 꺼려해 왔다.³⁵⁾ 또한 일본의 교과서는 한국과의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한편, 북방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이미 중간수역이 설정되면서 일본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 보다는 자신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일본 교과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국과 세계의 지리를 묶어 통합적인 시각으로 세계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과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지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 우리나라의 5종 교과서는 교과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대단원의 주제는 모두 같지만 교과서의 구성이나, 내용은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천재 교과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한 사례를 제시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35)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권 제3호, p195~196.

우리의 국토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읽기자료(사진과 그래프, 지도 및 신문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국토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주)교학사는 각 중 단원 마다 ‘중요 용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많은 그래프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탐구활동이나 도움자료를 통해 시사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고, 한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지리적인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주)금성출판사는 ‘더 알아보기’와 ‘생각 넓히기’를 통해 자세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사진, 도표, 삽화를 통해 좀 더 깊은 수준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우리나라 국토관을 학습하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잘못된 우리의 위치 특성을 바르게 고침으로 우리 국토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특징은 먼저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은 후 본문에 들어가 학습하도록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국토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열린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본론의 이론을 통해 학습자가 생각했던 부분과의 차이를 다시 학습하여 국토 교육에 좀 더 효율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학도서는 우리에게 내 땅, 내 나라가 있다는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례탐구를 제시해 응용력과 적용력 향상을 위해 본문 내용과 연계된 사례 지역이나 지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단원 하나씩에 ‘지리 답사반 활동 일지’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답사를 직접하듯이 흥미로운 지리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는 활동을 통해서도 시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고, 인구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단원을 다른 교과서보다도 지역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토 인식에 있어서는 생태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첫 단원에서 지구의 구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초자오선과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어떤 조약에서 몇 년에 설정되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지구 구면상의 위치와 표준시는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었고, 우리의 지역조사 방법이 조사 주제 설정, 실내조사, 현지 조사 등의 순서에 어떤 조사 방법들이 있는지만을 기술하는데 비해 일본의 지리 교과서(東京書籍)는 사람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저작권 배려, 방문처의 예의 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교과서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教育出版의 교과서는 ‘하azard 맵(Hazard map)’을 강조하며 자국의 자연재해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민족성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지는 모습이었고, 시야를 밖으로 돌려 일본의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教育出版과 二宮書店의 지역 조사 방법에서는 ‘군마현 오오이즈미 마을’에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 지역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국경과 영토 문제는 일본의 교과서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경 지역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와 북한의 휴전선이나 판문점을 사진으로 제시했던 점은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활용한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또한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독도 문제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으며, 대부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독도와 간도’라는 단원이 새롭게 추가될 만큼 영토문제를 중시하고 있어서 일본보다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그들의 인권과 처우와 관련된 법규 마련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서가 공통으로 다루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清水書院의 교과서는 국제화와 관련하여 대재해가 발생하면, 세계 각지에서 인적, 물질 원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국제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통적으로 4극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일본 帝國書院 교과서는 바다로 둘러싸여진 일본 남반에 위치하는 오키노토리섬에서 호안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귀중한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제시

하고 있었다. 즉,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해 일본이 그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二宮書店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시간대에서의 섬머타임 제도나 대척점 등 다른 교과서에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여러 도시들의 예를 면담이나 지역조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사례로 든 교토시와 진주시의 예도 인상 깊었다. 끝으로 第一學習社는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분쟁(카슈미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지도 읽기’를 다른 교과서보다도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종합하여 볼 때, 일본 교과서는 국경과 영토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잠깐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북방 영토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하고 있음도 특이한 점이다.

한국지리 교과서는 우리나라 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비해 내용적으로 더 깊이가 있고, 일본과 대치되고 있는 독도와 일제시대 때 빼앗긴 간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관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신독트린 이후 일본의 교과서 혹은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오히려 일본의 북방영토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독도는 영유권 문제 자체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내부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 우파 세력의 정치적 이슈화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실제 일본 내 교육계, 지리학계에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구활동’이나 ‘생각해 보기’ 등을 통해 우리 국토를 이론적 뿐 아니라 실제 인간 생활과 연결지어 지리적 문제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우리의 영토문제와 국토 단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많은 예시문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국토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영토’와 ‘국토’의 개념을 교과서 상에서 명확히 정리해 학생들에게 용어의 뚜렷한 정의와 차이점을 확실히 교육시켜야 하며, 우리 영토와 국토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교과서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우리국토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토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일부 특정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국토교육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와 학교는 국토교육에 있어 홍보와 지원을 해야 하며, 지리 교사들은 이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로 된 국토관을 인식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보편적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리적 인접국의 국토교육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지리교과서가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국토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리 교육자와 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미래에 우리 영토와 국토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국토관’을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원리, 법문사.
권용우 외, 2009, 우리국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 개발, 국토해양부.
심광택, 2007, 사회과 지리 교실수업과 지역학습, 교육과학사.

국내문헌

- 이하나, 2010,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후, 2006, “지리교육에서 국가 영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동, 2008, “한국과 이스라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배, 2006, “중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제36집 pp145~186.
김혜숙, 2007,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본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인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종연, 2008,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 - 영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 16권 제4호 pp387~398.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 17권 제3호 pp197~210.
권용우 외, 2010, “국토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6호 pp 721~734.
송호열,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2

권 제2호 pp53~69.

이자원외, 2010,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 국토지리학회지 제 44권 3호 pp431~432.

조철기, 2012,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개정과 새로운 지리 학습 프로그램 특징”,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32~251.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제16권 3호”, p181.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지, 제16권 제3호, p195~196.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12, “한국교육과정 실행과 사회과 교육의 탐구”, p22, 한국학술 정보(주)

이찬희, 2002, “일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규제 및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p50, 한국교육개발원.

심광택, 2007, “사회과 지리 교실수업과 지역 학습”, pp215~216, 교육과학사

윤옥경, 2007, “영토교육관련 학교교육의 내용 및 영토교육 사례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 대회 논문집, p155

홈페이지

연합신문, (www.yonhapnews.co.kr.)

일본 교과서 협회, (www.textbook.or.jp.)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포털, (www.land.go.kr.)

ABSTRACT

Comparison of geography textbooks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 – based on Korean and Japanese geography textbooks –

Kim, Min-Ju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problems caused by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aggravated and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geography has increased greatly. Despite the fact that geography has become more crucial, hours spent on geography in schools have drastically decreased and this clearly shows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our current curriculum. If this goes on, some may ask themselves if the subject 'geography' is a vital subject that every pupil has to lear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hat we give some thoughts to whether geography can be appropriately educated.

Because of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not only Japan, but China has also started to develop some territorial problems with Korea. A typical example would be problems related to 'Leodo' . Now, these territorial problems we are facing attract a lot people' s attention and we have to realize that we should be the ones who have to solve them in the near future.

Geographically, it is unlikely that territorial problems we have with other countries will be alleviated. Consequently, we will hav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properly and change our thoughts we have on our land before the situation gets worse. Furthermore, geography must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ndatory subjects to stud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our country.

National territorial education system incorporates basic elements from geography textbooks and countries apart from Korea are also believed to have utilized their own system through a variety of medias and textbooks. Therefore, territorial education will play a big role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This helps us show how territorial education is being handled in Korean textbooks compared to those of Japan.

As mentioned just now, the investigation, in which geography textbooks from Korea and Japan are compared, is closely related to the ownership of Dokdo. After, doctrine, some of us were expecting Japanese textbooks to give major coverage to doctrine, but that wasn't the reality. Things didn't turn out the way we wanted. Instead, Japanese textbooks covered the importance of their northern territory. Plus, they only mentioned Dokdo to the point where onl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ossession of Dokdo were briefly introduced. We wonder if Japanese are completely ignorant when discussing issues of Dokdo.

As the new curriculum system gets utilized, textbooks we use in schools have been altered and have started to give big coverage to Korean geography. Moreover, people are trying their best to make pupils study about geography of Korea the right way, through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presented in textbooks. Nevertheless, we are still at the stage where we aren't perfect. We will be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current national territorial education and study

persistently for all the students in Korea.

〈부록〉 일본 지리A교과서

